

Y세대 인도위해 ‘Rethink Church’ 캠페인 펼쳐

RETHINK CHURCH

미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총감독회는 2019년까지 교인의 평균 연령을 10세 아래까지 낮추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작년부터 교회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하자는 취지의 ‘Rethink Church’의 일환으로 보인다. 연합감리교회 웹사이트에

UMC, 2019년까지 평균 연령 10세 낮추기 추진

최근 ‘우리 세대는 이랬는데... 라고 말하지 말라’는 제목의 기사는 X세대의 뒤를 잇는 Y세대(밀레니엄 세대)를 1982년생부터 1995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라고 정의한다. 기사는 “이들은 팀이나 공동체 중심적이고 더 낙천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 결과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로 보면 이 세대(18세부터 25세까지)가 가장 적은 수를 보이고 있다. 25세 이상의 40%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비해 이들은 32%의 참석률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2007년 Barna Group의 조사 결과는 교회에 다니는 젊은 이들 중 절반 정도가 기독교를 비판적이고 위선적이며 또한 정치

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들 중 1/3은 기독교가 구식이고 현실성이 없으며 그들은 현재의 기독교가 원래의 것에서 변질됐고, 현 사회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는 ‘Rethink Church’ 캠페인 광고를 담당하는 Bohan Advertising의 최고기획책임자 Ja-

mie Dunham의 말을 인용하며 “이 나이 때의 젊은이들은 영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전통이고, 그들이 교회의 위선이라 여기는 것들”이라며 “젊은이들은 교회를 벗어나 무언가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Y세대에게는 지역 사회 봉사하고 그들에게 도움 될 만한 훈련,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할 것을 권한다. 예를 들어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때 경제적으로 삶을

잘 꾸려나가는 방법이나 직업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는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라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과 휴대폰이 생활의 일부가 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한 세대’의 관심을 끌만한 창조적인 새로운 사역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회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던져놓기만 하면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충고했다. (오상아 기자)



희생자를 애도하는 아이티 시민들

2월 12일은 아이티 희생자 위한 국민애도일

아이티 사망자 27만 급증, 사망자 수 관련 신빙성 제기

아이티 대지진 사망자 수가 날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9일 아이티 정부가 대지진으로 말미암은 사망자가 23만 명에 이른다는 발표 이후, 르네 프레발 아이티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10일까지 집계된 지진 사망자 수가 27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4년 동남아 쓰나미 사망자 약 23만 명을 훨씬 넘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나 아이티 지진 사망자 수와 관련, 정확한 사망자 파악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마리-로랑스 라

세계 통신장관이 지난 9일 밝히 사망자 수 23만 명에 대해서도 일부 관리들은 신빙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아이티 정부는 2월 12일을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국민애도일로 선포했다.

“교단에서 예수가 사라져간다” PCUSA 복음수호운동

미국장로교(PCUSA)의 복음주의 회원들이 교단 내에 흐르고 있는 자유주의 기류에서 성경적 신앙을 수호하기 위한 연합에 나섰다.

최근 ‘성경적 장로교 네트워크’를 발족한 이들은, 현재 PCUSA 내 분위기에 대해서 “보수 회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반영되고 있지 않고, 따라서 교단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며 “복음주의 커뮤니티 안에서 도 절망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히 교단에 ‘남아서, 싸우고, 이긴다’는 낡은 전략은 우리를 한데 모으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네트워크는 “교단의 역사와, 성경적이고 고백적인 개혁 신앙을 수호하기 원하는 이

들을 연합시키고, 교제와 공동의 헌신을 통해 서로를 굳건하게 하는데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PCUSA의 보수 회원들은 교단 내 팽배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최근 들어 특히 동성애 문제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을 문제 삼으며, 탈퇴를 감행해 왔다.

이러한 갈등이 정점에 이른 것은

자유주의 노선 지양 노력으로

‘성경적 장로교 네트워크’ 결성

지난 2008년으로, PCUSA 총회는 당시 교단 헌법 중 ‘목회자 및 장로, 집사 등 모든 제직자는 남성과 여성 결합의 신실한 결혼 정립 및 혼전 순결을 조건으로 한다’는 ‘정절과 순결 조항(G-6.0106)’을 삭제하는 개정 헌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 발효를 위

해 요구되는 173개 노회의 과반 수 찬성을 얻지 못해 비록 이같은 움직임은 무산됐지만, 이후 총회 결정에 반발한 많은 보수 회원들이 교단을 떠났다. 총 2백만 회원의 교단에서, 2008년 이래로 탈퇴한 회원 수가 약 7만(69,381)명에 이를 정도다.

‘성경적 장로교 네트워크’의 지

도자 중 한 명인 토비 브라운 목사는 “우리 교단이 걸어가고 있는 길은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와 위기로 여겨진다. 많은 보수 회원들은 교단에서 복음과 예수가 사라져 가고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분위기는 교단의 개혁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까지 흔들어 놓지는 못한다”는 것이 복음주의 회원들의 견해라고 밝혔다. (순현정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이사의名家
귀국이사 · 시내이사 · 타주이사 · 차량운송
그리드도인 사상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새로운 도약, 이문규 법률 그룹

2009 사업부문 재편, 분야별 전문성 강화, 고객만족 극대화

이민

- 미국 취업이민, 취업비자, 투자이민, 투자비자, 종교이민, 종교비자, 가족이민 전문
- 거절 케이스, 재심승소사례
- 철저한 분석, 정확한 판단력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로펌
- LA 본사와 SEOUL, IRVINE 지점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

상법/소송

- 20년 이상 소송 및 파산 신청에 풍부한 경력
- <소송> 계약 분쟁 수급, 저작권 또는 특허권 침해
- <파산> 개인파산, 기업회생, 신용문제 상담
- <상해> 최대 보상금, 치료병원 연계
- <용자> 용자조정, 용자소송, 차압
- <부동산> 리스 양도, 리스 분쟁 및 협상

대표전화 **213.380.2828**

LEE & KENT
LAW OFFICES OF LEE & KENT

LA OFFICE (213) 380-2828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IRVINE OFFICE (949) 442-8370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SEOUL OFFICE (822) 510-520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8-1 J타워 6층

www.leekent.com
E-mail : info@leekent.com

릭 워렌, “대형교회, 멀티 사이트 교회는 성경적”

대형교회들은 단지 현대의 일시적인 유행으로, 이 같은 현상은 점점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복음주의자 리 워렌 목사(새들백 커뮤니티 교회)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초

미국 코네티컷 하트포드 신학교 연구팀에 의하면, 2007년 매주 성도 수 2,000명 혹은 그 이상 되는 교회의 숫자는 1,250개였다고 추정했다. 1960년에는 단지 16개 교회들만이 2,000명 이상의 성도 수를 기록했다. 비록 그들이 모든

churches)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어디서 1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서 만날 수 있었는가?”라고 반문한 워렌 목사는 “그들은 성전들과 각자의 집에서 집으로 모임을 가졌다”고 그



릭 워렌 목사. ©새들백교회

회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 규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내한다.”

대부분 대형교회들은 대형 교회 건물보다 폭발적인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선택했다. 하트포드 연구자에 따르면, 단지 5% 대형 교회들만 3,000석 이상 되는 성전을 갖고 있다. 2008년 대형교회 평균 출석 성도수가 4,142명이었을 당시, 분당 평균 좌석 수는 1,794석이었다.

지난 5년 간, 대형교회의 30% 이상이 멀티 사이트 모델을 선택했다.

릭 워렌 목사에 따르면, 새들백 교회는 지난 30년간 꾸준히 성장했다. 지난해는 침례자, 소그룹, 선교사들에 대한 기록상 최고의 해였다고 말했다. “새들백의 성장의 키(Key)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성장의 원인은 ‘더 크게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더 작게 성장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지재일 기자)

초대교회는 대예배와 소그룹이 균형이룬 대형교회

대교회를 포함해, 대형교회가 존재하며 리 워렌 목사는 라디칼스 컨퍼런스(Radicals Conference)에서 말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새들백교회에 비해 5배나 더 컸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초대 교회가 20년 내 성도 수 120명에서 100,000명 이상 증가했다고 말한다”고 워렌 목사는 말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대형교회였다”며 그는 대형교회의 시대는 아무도 모르게 교회사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미국 종교 단체들의 1% 이하를 구성하지만, 미국 예배자들의 반 이상은 대형교회를 가운데서 나타냈다.

하트포드 연구자 Scott Thumma와 Dave Travis는 대형교회는 주변에서 잠시 동안 존재할 것이라고 그들의 보고서에 표기했다.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들은 하나의 현대적인 현상이라고 믿는 가운데, 워렌 목사는 “이미 2,000년이나 된 역사”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그는 최근 몇 년 내 폭발적으로 증가한 멀티 사이트 교회들(Multi-site

는 사도행전을 인용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나의 교회, 여러 장소들(Notice: one church, multiple locations. One church, multiple venues). 바로 그것이 성서적인 개념”이고 그는 거듭 강조했다.

남가주에 위치한 새들백 커뮤니티 교회는 현재 12개의 성전들-8개 성전은 레이크 포레스트 캠퍼스(Lake Forest campus)에, 4개는 다른 도시들에 있다. 매주 약 22,000여 명의 성도를 맞이하기 위

해 하나의 대형 성전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워렌 목사는 첫 번째 교회에 의해 확립된 교회의 표준이 지켜지는 원칙이라, 다양한 장소에 작은 교회들을 세우는 것을 선택했다. “이것이 커뮤니티를 섬기기 위해 교회가 더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워렌 목사는 말했다.

“나는 대형 경기장을 짓는 것에

관심이 없다. 큰 빌딩은 일주일에 한번 사용된 후, 평일에는 공간이 비어버리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무도 큰 대형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 단지 목회자들이 많은 대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것은 단지 교회의 규모 때문이 아니라, 규모가 작아도 성도들은 교

월드비전은 포르토프랭스 내 이재민 캠프에서 한 가정에 25kg에 달하는 구호 식량을 총 1,700가족에게 공급했다.

월드비전 8,570만 불 모금, WFP 100만 명 식량 공급

월드비전은 세계식량기구(이하 WFP)에서 33만 8천명에게 2주 구호 식량을 제공해 현재까지 1백만 명에게 구호 식량을 공급했다고 10일 현지 소식을 전했다. 또한 곡물 가격 상승으로 WFP에서 긴급 구호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오상아 기자)

“세계 기독교인 비율, 2025년까지 정체 이어질 듯”

2010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율은 과거에 비해 줄었으며, 오는 2025년까지 소폭 상승하지만 거의 정체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또 기독교 인구 가운데 천주교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순수한 개신교인의 숫자를 따진다면 이는 이슬람 인구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이는 2025년이 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의 2010년 1월 조사표에 따르면 1900년대에는

세계인구가 약 16억 명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비율이 34.5%였으나, 2010년 현재에는 전 세계 인구가 약 69억 명이지만 기독교인 비율은 33.2%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 2025년 전 세계 인구는 약 80억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독교인 비율은 33.8%로 2010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0년 현재 기독교 인구는 약 22억9천만명이

다. 그 뒤를 이슬람 인구(약 15억4,944만명)가 따라오고 있으며, 힌두교와 무종교, 중국 종교 등의 순이다. 기독교 인구 가운데 등록교인은 약 21억7천만명이며, 교회 출석자

2억7,444만명), 성공회(약 8,678만명), 기타 기독교(약 3,491만명) 순이었다. 대륙별로는 유럽이 약 5억6천만명의 기독교인들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라

틴 아메리카(약 5억4,315만명), 아프리카(4억7,060만명) 등의 순이었다.

현재 기독교 교파는 41,000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회는 약 485만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는 28,000개가 있고, 해외선교 파송단체는 4,700여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교파별 기구(CWC) 가입 단체는 360여개였으며, 세계 교회협의회 가입단체도 690여개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제공=선교신문)

2010년 전체 인구 중 33.2% 가량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의 2010년 1월 조사표에 따르면 1900년대에는

세계인구가 약 16억 명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비율이 34.5%였으나, 2010년 현재에는 전 세계 인구가 약 69억 명이지만 기독교인 비율은 33.2%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 2025년 전 세계 인구는 약 80억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독교인 비율은 33.8%로 2010년과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0년 현재 기독교 인구는 약 22억9천만명이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박희민,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해성

TEL : (213) 739 - 0403
FAX : (213) 739 - 0408
Email: chdaily@gmail.com
주소 : LA/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하고 임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2009년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아이토크비비 열풍 북미강하!!

이젠,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한인들은 아이토크비비를 씁니다!
[가정용 스마트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800-872-2902

Verizon, AT&T 가정용 전화 완전대체 \$24.99 /월 (TAX 포함)

집전화 1대+핸드폰 2대로 한국포함 27개국에 자유롭게 국제전화!

30일 환불 보장 NO 계약기간

아이토크비비를 원하는 기간동안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외출시에도 휴대전화로 편리하고 자유롭게 국제전화!”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부담없이 미국으로 전화!”

아이토크글로벌
• 본인의 휴대전화를 아이토크비비 아카운트에 연결해 언제 어디서나 한국 포함 27개국에 국제전화 이용 가능
• 인터넷 전용선이나 IP BOX가 없이도 접속변호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 가능
• 아이토크비비 가정용 전화 서비스와 동일한 안정적인 통화 품질

마이 코리아 넘버
• 복잡한 접속번호 No! 국가번호 No!
• 한국에서 국내통화하듯 간편하게 고객님께 전화
• 한국내 요금으로 국제전화에 대한 부담 Zero
• Caller ID를 통해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번호 확인 가능
• 한국의 가족 및 친구를 위한 최고의 선물
• 한국과 교류가 많은 비즈니스맨에게 적합

지금 가입하시면, 아이토크글로벌 매월 500분 무료!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온라인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 www.Korea.iTalkBB.com

iTalkBB와 함께 성장하실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213-784-1133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개통비(\$29.99)가 부과됩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교회 문답] - 열번째 남가주빛내리교회 박용덕 목사

연합을 위한 초석, “목회자 마인드 바뀌어야”

이민교회는 세대교체, 교회 연합, 2세 사역, 부흥 등 다소 무거운 주제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에 본지는 목회자의 여권을 수렴해 한인교회의 미래와 나아갈 바를 조명하고자 한다.

열 번째 만남은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와 함께 했다. 박 목사는 현재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4백여 개의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미주 총회장으로 교단을 섬기고 있다. 박 목사는 모태신앙으로 중학교 졸업 후 녹막역에 걸려 쉬는 동안 빈민에 쌓였고, 그 동안 하나님을 더욱 찾고 만나게 되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오렌지카운티교회협의회도 남가주에 위치한 여러 개의 교회 중 하나로서 지역 교회 연합 등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연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우선 교회 연합에 장애가 따르는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개교회주의이고 두 번째가 현실에 묻혀 안주해 버리는 현실 안주형입니다. 첫 번째 개교회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선 한 교회만이 성장해 지역사회를 섬긴다거나 선교에 더욱 힘쓰겠다는 그릇된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한 교회가 일하는 것보다 보다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 일을 할 때 더욱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식이 바뀐다 하더라도 불경기와 교세 등을 이유로 들어 연합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그저 지역사회의 한 종교 시설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생동감이 있고 교인들이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아가 하는데 그러한 통로가 연합사업입니다.

그리고 연합 사업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혹 목회자가 교회 밖을 나가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 사업이 자기중심적인 삶인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연합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길 때 교회에도 이익이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쓰십니다. 현실을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통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나가서 일하려는 욕망이 있어야 하는데 목회자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할 때 교인들이 따라 옵니다. 교인들이 따라올 때 교인들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고 섬김을 통해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고 목회자의 마인드가 바



남가주빛내리교회 박용덕 목사

꾸어야 성도도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뀐 마인드로 인해 지역사회로 나아가갈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기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는 알 수 없듯 지역사회로 나아가지 않을 때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로 교회가 간다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사람들에게 삶의 끈기함이 찾아올 때 교회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연합을 위해 교회협의회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목회자간에 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교류를 위한 첫 번째로 사모함장단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아닌 사모를 위한 함장단을 시작하게 된 것은 사모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헌신하지만 정작 대화 상대가 많지 않아 속내를 털어놓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들 간의 교류와 친목을 위해 함장단을 시작하게 됐고 사모들 간에 격려하고 힘을 주어 활력을 얻을 때 목회자들도 힘을 얻어 사역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 가족 수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유대관계 강화와 목회자간 교류를 위한 것으로 이것을 통해 목회자간 단합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밴드팀의 경연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통해

교회들이 함께 준비하는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들의 참여를 높이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대각성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로 나가 일하는 것도 목회자가 교류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협의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회협의회 위상이 달라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타 지역 교회협의회와의 연합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 특별한 연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아이티 대 지진 참사로 인해 지역 교회협의회간 힘을 합쳐 아이티 난민들을 돕기 위해 나섰고 이를 계기로 더욱 연합에 힘쓰게 되길 바랍니다.

평소 책을 많이 쓰시죠?
제가 쓴 책의 한 문단의 글을 통해서라도 은혜 받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태근 기자>



LA 교협, 남가주한인목사회 긴급의료팀 파견

LA 교역자협의회(회장 표세홍 목사)와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이정현 목사)가 함께 주최해 지난 2월 5일부터 15일까지 아이티 피해자를 위해 1차 긴급의료팀을 파견했다. 의료팀 단장은 윤혁삼 장로와 강신욱 박사(LA교역자회 의료분과 위원장)다. 의료팀 파견은 글로벌 비전뱅크, 윤삼혁 소아과, 강신욱 내과, 백보한의원, LA좋은열매교회, 영생교회, 페이스기독교신학대학원, 등이 주관했다.

미주한인신학교들 위상 드높인다

국제개혁대 · 미주장신대, 성서대학협회 정회원 자격 획득 예상돼

남가주 소재 미주한인신학교들이 17일부터 19일까지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열리는 연방정부 교육부 성서대학협회(이하 ABHE)로부터 정회원 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ABHE는 미 교육성이 인정하는 미고등교육인증협회(CHEA)

로부터 승인을 받은 인가가구이며, ABHE로 부터 정회원(Accredited)자격을 획득한 신학교는 미국 50개주 전역 및 해외에서도 미국연방학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ABHE로부터 정회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선 세 단계를 거쳐야 하며 이번 연차총회에서

정회원 자격을 획득을 기다리는 국제개혁신학과와 미주장로회신학대는 두 번째 단계인 준회원(Candidate)자격까지 획득했다.

한편 ABHE 정회원으로는 베데스다대, 월드미션대 등이 있다.

<이태근 기자>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은행구좌가 없어 고민이세요?

- 은행구좌 오픈(은행방문 없이 가능)
- 은행구좌만으로 긴급 현금화!!

전화 주시면, 고민이 단번에 해결됩니다.
Tel: 213-739-8809

여성건강선교회
Samuel Yu 선교사
Tel. 213.999.2696
3200 Wilshire Blvd #1750 (south tower)
10 years feeding 1 million people.

의료선교는 · 우리 · 모두의 · 일입니다!

제3차 한미 의료선교대회

가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교를 꿈꾸는 모든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0년 3.26(금)-27(토)

장소: 엘바인 베델한인교회

주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강사: 유수만(D.D.S.), 김정남(Ph.D.), Scott Harrison(M.D.), Elizabeth Styffe(R.N., M.N., P.H.N.)

주최: 미주 기독교 의료선교협의회 (KAMHC)

등록문의: www.kamhc.org, kamhc2010@gmail.com, 714-444-3032

조기등록 할인 2월 28일까지

24개의 선택강의 강의 시간 중에 의대/치대 입학설명회도 있습니다.
강사: 전/현직 의과대학교수 (admission committee members), 개인외, 의대 재학생 및 MedSend 강사 (학비보조프로그램 운영단체)
대상: 학생 및 학부모

1세대면 선교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경험들을 나누고 도전받는 기회가 되며,
2세대면 미래 의료인이 되기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KAMHC
Korean-American Missions Health Council
Non-profit Organization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반문해 봐야 할 때

합동신대원 교수 이승구 목사가 지난 12일 오후 7시 나성 남포교회(한성운 목사)에서 열린 말씀 집회 둘째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뉘름이 없을 때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반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님을 믿어 옛사람을 벗어 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육체의 것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육체와의 다름이 있다”며 “육체와의 싸움을 계속하다보면 나중에는 그러한 다름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그럴 때 자신이 정말 예수를 믿



합동신대원 이승구 교수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태근 기자

합동신대원 이승구 교수, 말씀집회서 말씀 전해

이날 이 목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특성’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겪는 육체와의 다름, 잘못된 영과 육의 구분 등에 대해 말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목사는 “육체의 특성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인데, 자살하는 이들을 보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 받을 사람이 아닌 데라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스스로를 파괴한다. 예

고 있는지를 반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목사는 영과 육을 구분하는 잘못된 영육이론이 삶 가운데 있다며 영과 육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대개 영적인 일로 기도, 찬양, 예배, 집회 등을 말하며 육적인 일로 식사, 데이트 등을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다”며 “우리의 삶은 이원론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목사는 “예배를 드린 후 예배드린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될 때, 이것이 나 중심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 안에서 예배드릴 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라며 “육과 영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며 잘못된 영과 육의 구분에 대해 말했다.

한편 합동신대원 조직신학 교수인 이승구 목사는 총신대 기독교 교육에서 B.A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M.Ed를, 합동신학원에서 M.Div를 마쳤다. <이태근 기자>

< 독자 투고 >

갈릴선교교회 한천영 목사

선교지 가는 길에 난관 예상치 못했지만

지난 2월 8일 갈릴리선교교회 성도들과 멕시코 선교지(티후아나)를 선교차 방문했다. 우리교회는 매달 멕시코 신학교(경결신학교/조성출 선교사)에 선교비를 지원하고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1년에 한 차례는 성도들이 직접 신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선교 물품과 선교비를 직접 전달해 전해준다. 이번에도 10여명의 성도들이 선교지 방문길에 올랐다.

또한 방문 때마다 신학교를 졸업한 신학생들이 개척한 교회를 찾아가 함께 기도와 권면을 해주고 소정의 선교비를 전달해 준다. 이번에는 티후아나 근교의 아도나이 교회를 방문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교회를 개척한 다니엘 전도사의 말에 의하면, 그 지역에 수많은 가구가 있는데 교회는 아도나이 교회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

그곳은 새롭게 조성된 주택단지이지만 종교로부터 부지가 허락되지 않으면 넓은 교회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 그래서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 주택을 구입

해 개조해서 교회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방문한 후 아도나이 교회의 성장 가능성과 비전을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도와 선교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번 방문길에서는 예전과는 다른 어려움도 있었다. 성도들과 차량 세 대로 나눠 타고 선교물품을 싣고 국경을 통과하는데, 두 대는 통과했지만 한 대가 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준비해간 선교물품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재입국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입국 후 차량 세대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동하다 보니 티후아나에서 차량 한 대가 미처 따라오지 못해 길을 잃어버리는 헤프닝도 있었다. 예상치 못한 이들이 발생했지만 이런 어려움이 선교하는데 오히려 좋은 추억이 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따라야 받는 상급도 크기 때문이다. 이유 있는 대가와 고난은 갈릴리선교교회에서 강조하는 섬김의 정신이기도 하다.



신학교 강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한천영 목사

지역 섬김 차원 무료건강검진 실시

UCLA 공중보건대와 존슨 종합 암 센터가 주관하고 남가주리디머교회(김요섭 목사)가 후원하는 무료건강검진이 지난 14일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1938 W.에 위치한 남가주리디머교회에서 열렸다.

지역 섬김 차원에서 진행된 무료건강검진에는 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날 검진 받은 1백여명의 한인들은 혈압, 콜레스테롤, 심박수 등을 진료 받았다. 이날 검진은 간단한 설문 조사와 검진까지 25분간 진행됐다.

남가주리디머교회 김요섭 목사는 “한인들의 건강검진을 위한 장소로 교회가 쓰일 수 있어 감사하고 또 건강검진을 통해 한인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수 있어 감사하다”며 “한인들이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이민 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태근 기자>



미주중교평화협의회 양현승 목사가 성금을 남가주교협 지용덕 목사에게 전달했다. ©이태근 기자

한인 교계단체, 아이티 위한 성금 남가주 교협에 전달

남가주한인목사회와 오펜지카 윤티교회협의회 등에서 모금된 아이티 지진 대 참사 구제 성금이 11일 정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지용덕 목사)에 전달됐다.

이날 미주양곡교회에서 전달된 성금은 9만 9천 8백여 불로 아이티 지진 대 참사 후 재난민을 돕기

위해 모금된 것이다. 성금을 전달 받은 후 남가주교협 관계자들은 “단기적인 계획으로 각 교협과 목사회 관계자 1명씩 15일부터 18일까지 아이티를 방문해 현장 답사 및 구호물품 전달한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현지에 선교센터 및 신학교, 교회, 고아원과 학교를 겸

한 시설 등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가주교협 관계자들은 “현지에 외과 치과의사의 부족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재난민들을 위해 22일부터 26일까지 매달 일주일 단위로 의료 선교팀이 출국한다”고 말했다.

<이태근 기자>

월드비전 직원 채용 공고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기관인 월드비전에서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 동란의 고아와 미망인을 도우면서 태어나 현재는 전 세계 1백 여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돕고 있는 월드비전. 월드비전US 코리아 데스크에서 서부 지역 디렉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부서 : 코리아데스크 서부지역 디렉터
- 모집인원 : 1명
- 모집기간 : 2010년 2월 30일까지 서류접수
- 필수자격조건 :
 1. 신실한 크리스천
 2.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자
 3. 미국내 취업에 걸려사유가 없는 자
 4. 영어, 한국어, 이중언어 구사자

- 우대사항: 1. 기독교 NGO 및 연합회 활동 유경험자
- 2. NGO 마케팅 실무 경험자
- 업무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1. 조직관리 및 각종 행사의 기획/운영 능력
 2. 기본적인 컴퓨터 수행능력 (한/영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온라인 시스템 포함)
 3. 효과적 프리젠테이션 능력
 4. 목표달성에 대한 책임감, 성실성
 5. 타주 출장 가능한 자

채용절차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한/영 각 1통)
(관련업무 수행 경험에 대한 내용 포함)
 2. 담임 목사님 추천서
- * 제출된 서류는 다시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1. 1차 서류접수 jikim@worldvision.org
2.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개별 통지, 월드비전US 웹 사이트 (worldvision.org) 온라인 접수
3. 개별 면접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3월 1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 통신포로도 할 수 있음

본교 소개

-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셔 + 웨스턴)

“길선주 목사의 회개가 한국교회에 필요하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명혁 목사, 이하 한복협)의 2월 초 찬기도회 및 발표회의 주제는 ‘회개’와 ‘제사’였다. 12일 서울 종로 종교교회(최이우 목사)에서 열린 이 모임에는 왕대일 박사(감신대 구약학 교수), 임희국 박사(장신대 교회사 교수), 박명수 박사(서

야만 한다”고 말했다. 다윗이 이렇게 즉각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왕 교수는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기까지 대략 아홉 달이 걸렸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그는 무려 아홉 달 동안 죄의식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

데, 죄가 얼마나 영혼을 옥죄고 있는지를 몸으로 보여준 일이 있었다. 그는 몸에서 뱃줄을 칭칭 감고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몹시 괴로워하는 것으로 죄가 무엇인지 선포했다. 이를 바라보던 청중의 다수가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고백했으며, 몇몇은 마룻바닥에 나

책임 감당해 국민의 윤리의식과 도덕정신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오늘의 교회가 이러한 점들을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박명수 교수는 ‘이성봉 목사의 삶, 회개, 그리고 한국사회’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이성봉 목사에게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내면에 악착스러운 마음이 있다고 고백했는데, 이 내면의 죄성을 인식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후 이성봉 목사에게 있어 회개의 의미를 살핀 박 교수는 “이성봉 목사에게 회개는 일회성이 아니라 평생의 과제였다”며 “특히 그의 회개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점은 죄를 자백한 후 이에 대한 변상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성봉 목사는 죄를 고백한 후 이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을 요구했다. 이런 변상운동은 사회로 하여금 기독교인의 다른 모습을 보게 만들었고,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김명혁 목사)의 2월 초찬기도회 및 발표회에서 방지일 목사가 축사하는 가운데 이정익 목사, 김명혁 목사, 김상복 목사(오른쪽부터 차례대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 김진영 기자

한복협, ‘회개’와 ‘제사’ 주제로 월례회

울신대 교회사 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다윗의 회개”를 주제로 발표한 왕대일 교수는 뱃세바를 취한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한 장면을 소개하며 “회개는 구원으로 가는 마중물(땀에서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물-편지자 주)”이라고 강조했다.

왕 교수는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털어놓고 회개한다”며 “왕으로 절대적 권력을 가졌던 다윗이 나단의 꾸짖음을 듣자마자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는 유심히 봐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왕 교수는 “이렇게 다윗은 당시의 왕이었음에도 나단의 꾸짖음에 자기 왕관을 내려놓았고, 위신을 모두 내려놓았다”며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신과 체면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삶이 달라지고 그 목표가 달라진다. 회개는 용서로 가는 길이며 구원으로 가는 마중물”이라고 역설했다. 임희국 교수는 ‘길선주 목사의 회개의 제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장대현교회 예배에서 당시 장로였던 길선주 목사가 큰 능력에 사로잡혀 설교했는

팅글면서 죄를 고백했다”며 “길선주 목사의 회개로부터 시작된 1907년 평양 대각성부흥운동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다시 일어나 할 신앙운동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양의 대각성부흥운동은 교인수의 증가나 교세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었고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서 촉발됐던 것”이라며 “또한 당시 사람들은 러일전쟁을 겪으면서 교회를 안전한 피난처로 인식했고 지식인들은 교회가 사회의 공적

을 갖게 했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또 “이성봉 목사의 회개 운동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가 당시 만연해 있던 축첩과 같은 죄를 공격했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이성봉 목사의 회개운동은 서양 퇴폐 문화에 대한 도전이었다. 자본주

의 사회는 근본적으로 타락할 운명에 처해있다. 여기에 강력한 윤리운동이 결합되지 않는다면 사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회개운동은 건전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류재광 기자〉



북한 동포의 인권 보장을 외치는 인권단체

“북한인권 외면한 채 얻는 평화는 수치”

사회책임, 북한인권법 외교통위 통과 환영 논평

북한인권법이 외교통상동일위원회에 통과된 데 대해 12일 기독교사회책임이 논평을 내고 환영의사를 표하며 “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제정시켜 세계인 앞에 같은 민족으로서의 수치를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책임은 “그동안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고통스러운 비인권 상황을 외면한 채 독재자의 잘못을 지적하면 바로 깨지는 거짓된 평화에 목매어왔다”며 “지난 정권시절 세

계의 우수한 나라들이 참여하는 유엔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수 차례 기권함으로써 같은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해할 수 없는 민족으로 세계인의 조롱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

사회책임은 “북한인권을 외면한 채 얻는 평화는 5000년 유구한 역사와 우리 조상들 앞에 부끄러운 수치며 남한의 인권의 중요성을 외쳤던 자들이 같은 동포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졸업식 시즌을 맞아 학생들의 과격함 뒤풀이 문화가 연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가 평을내고 졸업식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옷과 몸에 밀가루를 뿌리는 것은 일제의 잔재라고 지적하며, 세족식과 연주회 등 졸업의 참된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의식을 권장했다. 다음은 교회언론회 논평 전문.

졸업식 문화 바뀌어야 한다. 밀가루 뿌리는 것은 일제 잔재 졸업식 시즌이다. 그 동안 졸업식 풍경이 매스컴에 많이 보도되었다. 그런데 소위 졸업식 ‘뒤풀이’로는 너무 지나친 장면들이 속출되고 있어 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들이 교복을 찢어 버리고, 옷과 몸에 밀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던지고, 속옷 차림으로 바다에 뛰어들고, 심지어는 반나체로 거

“졸업식 뒤풀이 추태, 이대로 방치해선 안돼”

리를 활보하는 행위도 있다고 한다. 이는 학교의 한 과정을 마쳤다는 ‘시원함’과 ‘섭섭함’을 벗어 던진다는 표현으로 이해하기에도 너무 저속하고 추태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졸업식에서 교복을 찢는 관습은 오래 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복에 밀가루를 뿌리는 것이다. 이것은 일제시대 일본에서 도입된 교복에 대한 저항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수년간 학교생활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성장한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는 마음과 행동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우리는 일제 잔재 문화를 언제

하고 이를 내버려 두면, 또 다른 왜곡된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가게 된다. 더욱이 지금처럼 자라나는 세대가 연출하는, 잘못된 졸업식 문화를 방치하는 것은 일정 부분 기성세대의 책임이 되기도 한다.

일탈과 다소 폭력적인 졸업식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당국과 학교,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교회언론회, 최근 물의 빛는 잘못된 졸업식 문화에 일침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졸업식에서 유생(儒生)들이 임금 이 내린 술잔을 받아 마시며, 군신간의 결속과 동기(同期)간의 우의를 다진다는 의미로 제복을 찢었던 파청금(破靑襟)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썩 좋은 관습은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지금은 선배가 후배에게 교복을 물려주는 운동을 펼치고 있지 않은가?

요즘 졸업식에서 자주 나타나는 또 다른 형태의 모습 중 하나는 교

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때문에 이런 잘못된 문화는 지속적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히 일부 학교에서는 부모님의 발을 닦아 주는 세족식, 재학생이 준비한 연주회, 색다른 예복 졸업식 등으로 졸업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고 한다.

문화는 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고, 문화에 의한 아름다운 전통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문화는 시대를 비틀어지게

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므로, 학교마다 참신한 졸업식으로 그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가 있고, ‘출발’의 기쁨이 있는 졸업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심성(心性)은 곱게 다듬어지는 아름다운 나무의 결과 같아서, 이를 어떻게 바르게 인도하느냐에 따라, 졸업이 갖는 참다운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대용 기자〉



선교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위해 한의학을 배우시려는 여러분을 LA 동국대학교가 적극 지원해 드립니다!

세계 속에 한의학의 지평을 넓혀가는 L.A. 동국대학교는 선교 및 커뮤니티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한의학을 공부하려는 종교인들에게 전 학비의 1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드립니다.

속하여 계신 종교단체 장의 추천서와 본인의 간략한 선교 및 커뮤니티 서비스 활동 계획서를 첨부하셔서 지원하십시오.

기독교일보
6주년을
축하합니다.

동국대학교  **LOS ANGELES**
dongguk university

한 의과 대학 School of Oriental Medicine

자세한 입학 상담 환영합니다.

입학상담: 서영훈 한국어반 프로그램 Director
• 학교 (213)487-0110 • Cell (909)202-6787

대학부속 한방병원 (213)487-0150 진료시간: 월-금 9am-10pm (무료진료 월요일 9am-6pm), 토요일 9am-6pm

< 11일 명동에서 14회 캔들데이 캠페인 열려 >



한국대학생대중문화감시단 소속 대학생들이 팻말과 촛불을 들고 명동 거리에서 캔들데이를 홍보하고 있다. © 김진영 기자

“초’와 같이 희생하는 사랑을 전하세요!”

대학생 문화 NGO인 한국대학생대중문화감시단(단장 남민우, 이하 감시단)은 지난 11일 명동 거리에서 캔들데이 캠페인을 개최했다. 14년째 진행된 캔들데이 캠페인은 발렌타인데이 고유의 의미가 사라지고, 상업적인 초콜릿 상품만 남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해 주변과 이웃을 돌아보는 하나의 문화운동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발렌타인데이는 본래 5세기경, 젊은 남자의 결혼을 금지한 로마의 칙령을 무릅쓰고 그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다 순교한 성 발렌타인을 추모하는 날이었지만 1058년 일본의 한 초콜릿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로 변질됐다. 감시단은 발렌타인데이의 숭고한 본의를 상실하고 물질주의적이고 감각적인 대중문화의 대표적 사례로 전락하게 된 것을 보고, 1995년 서울 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문화NGO를 결성, 캔들데이를 기획했다. 캔들데이캠페인은 자신을 녹여 어둠을 밝히는 초와 같이 희생적인 사랑을 전달하자는 무브먼트. 이날만큼은 초콜릿이 아닌 자신이 아닌 이웃과 가족, 주변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마음이 담긴 초를 선물하자는 의미가 있다. 릴레이 촛불 전달식, 캔들송 제창과 성명서 낭독, 연극, 캔들

데이 피켓 시가행진 등으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서 감시단은 성명서를 통해 캔들데이의 취지와 함께 대중문화에 대한 감시단의 약속을 전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중문화가 인간의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경향에 반대하고 △대중문화가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에 반대하고 △대중문화의 주인공이 TV와 영화에 등장하는 연예인이라는 생각에 반대한다 △대중문화가 일부 세대에 편향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간성을 높이는 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옹호할 것

△주체적이면서 건전한 청소년 대중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이 사회에서 자기를 희생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을 대중문화의 중심에 서게 할 것 △건전한 청소년과 대학생 문화가 대중문화의 중심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약속했다. 감시단의 이철아 사무국장은 “사람들이 점점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는 가운데 초와 같이 이웃과 사회를 밝히는 삶을 살자는 취지로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초와 같이 삶을 사는 이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미경 기자>

“친일파 환수 재산,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한국교회연론회가 최근 논평을 내고 친일파에게서 환수한 재산을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게 돌아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7월 13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출발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조사위원회’가 4년간의 활동을 정리하고 2010년 7월에 해체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동 위원회가 환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은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들은 동 위원회의 활동에 더 큰 기대를 했으나, 세월이 많이 지나서 실제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회연론회는 이제 는 환

음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 그중에서도 독립유공자들이 당한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겪는 생활고 등과는 견주기가 어렵다고 본다. 교회연론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은 해방 후에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 왔고, 그 후손들도 교육의 기회를 얻어 사회적 기반을 닦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적 진실”이라며 “그러나 독립유공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자녀들까지도 학문의 기회가 봉쇄되었고, 타국으로 쫓겨나 유리(流離)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다 보니 그 후손들은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사

교회연론회 논평서 주장

수한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월 29일 국가보훈처의 의뢰로 한국보건의사회연 구원이 일반국민 1,000명과 독립유공자 후손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귀속 재산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문 조사한 것을 발표하였다. 설문에서 답하기를 ‘후손에 대한 개별지원’ 찬성율이 가장 높았고,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연구’,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기념사업’, ‘독립정신을 기념하는 상징물 건립’을 해야 한다는 순으로 응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연론회는 일제 식민통치시대 에 온 국민이 함께 고통과 어려

회 참여에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회연론회는 “따라서 정부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재산에 대하여 명확한 사용 방안을 정해야 하며, 가능하면 환수한 재산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고 주장했다. 교회연론회는 아울러 일제 식민 통치시대에 일부 종교인들과 종단이 친일반민족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그 대가로 일제의 조선총독부로부터 개인이나 종단이 엄청난 재산을 잉여 받고, 후에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하여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대용 기자>

“저작권 없는 성경스토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 넥스트웨이브컨벤션 >

‘영화인들 위한 마스터클래스’ 열려

‘다음세대와 미래목회의 대안’을 주제로 YSK(Youth Specialties Korea, 공동대표 고지현, 차스김)가 주관하는 제2회 ‘넥스트웨이브컨벤션’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영락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9일에는 할리우드의 영화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랄프

윈터가 초청돼 서울기독교영화제와 함께하는 ‘영화인들을 위한 마스터클래스(Master Class)’ 강의를 가졌다. 랄프 윈터는 엑스맨 시리즈, 스타트렉 등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다수 제작한 프로듀서로서 이날 마스터클래스 강의를 통해 할

리우드의 영화 기획, 이야기 전개 (Story telling), 기독교 영화 제작, 연출자로서의 정체성과 기획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강의가 열린 영락교회 선교관 건물은 영화제작에 관심있는 영화감독, 제작자, 감독지망생 등 백여명의 영화계 관계자들이 가득 열띤 질문과 토론의 시간이 이어졌다. 랄프 윈터는 다양한 영역의 수많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제1회 YSK 집회 당시 복음을

전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스토리’의 힘을 강조했던 랄프 윈터는 이날 강의에서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는 것은 감동적이고 강렬한 ‘이야기’임을 재차 강조했다. 랄프 윈터는 “내용 자체가 강력하고 재미있는 강렬한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다”면서 “한국 영화 시장에서 소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한국 밖 사람들에게 자국의 문화를 이해시키는 작품 만들면 세계시장에 유통시키



엑스맨 시리즈, 스타트렉 등을 제작한 할리우드 감독 랄프 윈터.

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 좋은 스토리 소재만 있다면 저예산 영화도 충분히 할리우드에서 승부수를 걸 만하다. 요즘 할리우드는 자신이 제작하고 있는 영화의 아이디어가 도용될까봐 비밀스럽게 제작이 진행되고 각본을 공개하지 않는 등 철저히 보안에 신경쓰고 있다”면서 “그러나 성경내용은 아무도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다. 누구나 이를 소재로 영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예산 영화들은 선댄스영화제와 같은 행사를 통해 더욱 쉽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미경 기자>

World Vision Building a better world for children. 긴급요청. 가난의 빛이 불잡혀 있던 그들에게 몰아 닦친 또 다른 재앙!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해 줍시다. 아이티(Haiti) 지진 긴급구호. 지금 전화 주십시오. 1-866-육이오-1950. 사망자 10만 명 넘을 것으로 추정 3백만 명(전국민의 1/3) 지진 피해 입어. 1월 12일 강도 7.0의 강력한 지진 카리브 해 아이티(Haiti) 강타 / 10만 명 사망 추정. 전인구의 1/3인 3백만 명 지진 피해 입어 그들에게 사랑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도와 주십시오. 월드비전 아이티지역. ▶ 1959년부터 아이티 고아 돌기 시작 ▶ 1978 월드비전 아이티 사무소 정식 개설 ▶ 아이티 전역의 20개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 30만 명 아동에게 수혜 ▶ 52,000명의 아동들, 월드비전 아동 결연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 받음. 5. 초기 구호 자금으로 구입된 물품 ▶ 임시 텐트 ▶ 담요 ▶ 식수통 ▶ 식기 용품 ▶ 5인 가족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위생 키트. 어떻게 생존자들을 도울수 있나? ◎ 크레딧 카드를 통한 후원 1-866-육이오-195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 체크 보내는 곳: TO: World Vision Korea Desk P.O. Box 9716 Federal Way, WA 98063 ▶ 체크 쓰는 방법: Pay to the order : World Vision Memo (For) : Haiti Earthquake

기자의 눈

평양과기대에 조건을 따지지 마라?

평양과기대(총장 김진경) 관계자들이 2010년 4월 1일 개교를 앞두고 최근 미주 각 지역을 돌며 후원자들을 모으고 있다.

간담회에서 김진경 총장은 “평양과기대는 북측의 젊은이에게 첨단 학문을 익히는 배움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는 인격 형성의 터전,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면서 “특별히 평양과기대 부지 내에 지식

신뢰할 수 있도록 평양과기대 스스로 새롭게 되길

복합단지(R&D Center)를 세워 외국기업과 북측의 브레인들이 협력하여, 국제 시장을 향한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경제발전의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발언이지만 경제든 선교든 북한처럼 폐쇄적인 나라를 대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는 재정의 투명성이다. 이번에 평양과기대 관계자들이 참석자들에게 배부한 ‘연변, 평양과기대 사람들’ 제61호 2009년 가을호 15페이지에는 지난 8년간의 재정을 간단하게 실어 놓았다. 이 ‘평양과기대 건립재정보고’에 의하면 평양과기대는 현재까지 270억 원의 후원을 받아 약 320억 원 규모로 건립됐다.

1년 예산이 1억도 되지 않는 미주한인 선교단체들의 성실한 재정보고서를 분기별로 보았기 때문인지 기자의 눈에는 영성이 없어 보였지만, 그동안 시원스레 재정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많은 발전인 것 같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상세히 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납득할 만큼의 재정 투명성은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

김 총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강도 만난 이를 도와준 사마리아인, 병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었던 예수님을 예

로 들며 “북한을 아무조건 없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한인 목회자들이 너무 조건을 따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강도와 강도당한 자를 구별하는 지혜는 필요한 것 같다.

그렇기에 공산권을 대할 때는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먼저 선교에 대한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립하고 접근해야 한다. 그렇게 구체적인 방안이 확립됐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공산권 나라의 특수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수정, 보완해 나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의 평화와 안전, 나아가 북을 전과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평양과기대측은 설립 자금 대부분을 기독교에 모금에 의존했으며, 그 명분으로 북한선교를 내세웠다. 그러나 같은 공산권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개방을 추진하는 중국과 여전히 폐쇄정책을 고집하는 북한은 전혀 경우가 다르다. 북한이라는 특수상황은 아무리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또 차체에 19주년을 맞는 연변과기대 또한 성공신화라고 말할 수 있는지 냉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라는 나라에 과학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합당하다면 어느 정도까지가 적절한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남북한은 분명 같은 민족이지만, 엄연히 전쟁을 잠시 중단한 상태에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최근까지도 북한은 핵실험과 개성공단 사태, 서해안 도발 등으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국가임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햇님 낭만주의 때문에 남쪽의 우리 가족들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소강석 목사, 한기총·예정합동 확인서 자료로 제출

이단세미나서 소강석 목사 이름 거론된 이유는?

13일 오전 10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린 KCBN 이사 임시 모임에 소강석 목사와 대뉴욕 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신현택 목사, 이하 뉴욕교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양측의 입장을 전했다.

12일부터 14일까지 부흥회 인도를 위해 뉴욕을 방문한 소강석 목사는 지난 8일 뉴욕교회 주최 이단대책세미나(강사 이대복 목사)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데 대해 먼저 “자성하고 더욱 겸손해지라는 기회로 삼겠다”며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것에 대한 경위를 설명했다.

소 목사의 말에 의하면 은사였던 김승연 목사가 담임하던 전주 서문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즈음 교회와 이단에서 전화가 와서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거짓말(허위 학력을 썼다는 점)을 하고 신학적으로는 자신이 북의 근원이라고 말했고, 이것으로 보아 그는 이단이라는 것이다.

소강석 목사는 김승연 목사가 광주신학교 전임 강사였으니 관례적으로는 교수라 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북의 근원’이라고 말한데 대해 받은 자료를 통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니 북의 근원이라고 말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소강석 목사 또한 전주서문교회 집회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북의 근원이다.” “교회와 이단”의 왜곡된 기사에 대한 반박문, 이종민 목사)“고 말했다.

소강석 목사는 부흥회 이후 교

기독교총연합회에서 소강석 목사가 이단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2월 4일자), 소속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소강석 목사를 정상적이며 건전한 목회자로 인정하는 사실 확인서(2월 3일자)를 자료로 제시했다. 교단에서는 2월 10일 '2009년 5월 15일 사단법인 기독교이단사

목사가 소 목사의 장모인 정금성 권사의 책에서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과 부합된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 해명했다. 소 목사는 정금성 권사가 ‘시아머니 시아버지 귀신’을 언급한 후 이어 ‘물론 실제로 시아버지 귀신이있겠습니까? 그 때는 그런 줄 알았지만 나중에 그런 귀신론은 잘못된 귀신론이라고 배워서 깨우치게 되었지요.’(155페이지)라고 돼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대복 목사는 “성경 말씀보다 강단의 설교가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소강석 목사는 주장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소강석 목사는 먼저 “저는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다.”고 말하며 “성경이 부적이지 않거나 전제되고 임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고 전했다.

소강석 목사는 “뉴욕교회측의 지각과 분별력, 선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존경한다.”며 “그리고 이대복 목사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뉴욕에 강사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뉴욕교회 측에서 신현택 목사(회장)는 “이단대책세미나는 이미 계획되었던 것이었고 우연히 부흥회 날짜와 맞아 떨어지게 됐다.”고 말하며 “교회는 교회의 행사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사건의 경위를 이대복 목사로부터 지적당한 부분에 대해 해명하는 소강석 목사

회 내적으로 하나 되고 담임 목사의 입지도 굳혀졌으며 “교회와 이단은 옥한흠, 조용기, 오정현, 오정호 목사 등 교계의 내로라하는 목사들이 이단 정죄한 바 있기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가만히 있었다.”고 전했다.

교단 측에서도 소강석 목사 자체에 신학적인 문제가 없으면 됐다고 했다. 이날 소 목사는 한국

이비연구대책위원회 측이 송부한 소강석 목사의 이단성 시비에 관한 문건을 수령했지만... (중략)... 소강석 목사의 신변과 본교단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해 별도의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서를 소강석 목사 측에 전하기도 했다.

또한 소강석 목사는 이대복

“이야기만 들어준다고 멘토가 될까?”

GBC 주최 소수민족 개척목회자 및 멘토 위한 트레이닝 진행 중

개척 목회자들 (Church-Planters)을 대상으로 한 전문 트레이닝이 GBC(Georgia Baptist Convention) 주최로 5일부터 열리고 있다.

전도, 상담자의 자세, 상담의 효과적인 방법 등 다양한 멘토의 기본을 전수하고, 선배들의 노하우를 전하고 있는 트레이닝에는 GBC 내 민족별 코디네이터 목회자들이 강사를 맡았다. 참석한 이들은 교회를 개척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 혹은 그들

의 멘토가 참가했다. 참가한 목회자들의 국적은 한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 다양했다.

두 번째 강연을 전한 팀 울프 목사는 “누가 멘토가 될 수 있나? 멘토란 무엇인가?”등을 강연하면서 “멘토는 책,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을 해야 한다”고 권했다.

또 멘토란 ‘그저 시간을 같이 보내고 대화하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팀 울프 목사(Tim Wolfe)

학생이 요구될 때도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프 목사는 자신의 멘토인 로저스 목사에 대한 일화를 전했다.

“저는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아내까지 모두 차 1대로 움직이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멘토인 로저스 목사에게 ‘중고차로 어디 산 게 없느냐?’고 묻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돈이 있는지 물길래, 개척 목

회하는 사람이 다 그렇듯이 아주 조금 밖에 없었고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오래된 품종이긴 하지만 녹색 볼보(Volvo)를 깨끗이 고쳐서 저에게 선물을 해 줬어요.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무엇보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투자해서 저를 진심으로 도와준 로저스 목사를 보면서 진정한 멘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울프 목사는 “멘토라면 자신의 재능, 달란트를 투자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회개척에 대해서 그는 “교인수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멘토링을 통해 지도자들을 배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나라 기자>

총신디지털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모집과정

Table with 4 columns: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 자격. Rows include 신학부, 신대원, 신대원 전문.

특전

-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함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여목제도 활성화되어 있음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사를 면제함

구비서류

-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치유목회상담원 교회 갈등 좌담회 열어

피할 수 없는 갈등... 필수불가결한 성장통

시카고치유목회상담원이 지난 11일 개최한 “교회 갈등 이대로 좋은가” 좌담회에 나온 3명의 발제자는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스킵코 한인교회 명병헌 목사는 “완전한 목회자, 완전한 성도, 완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갈등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갈등이 잘 해결되면 자아가 성숙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채규만 교수는 “교회 안의 갈등은 교회 성장에 가는 필수불가결한 성



좌담회에서 발제한 3명의 스피커, (가장 좌측부터) 명병헌 목사, 스티브 강 목사, 채규만 교수

장통이다”라고 말했다. 채규만 교수는 교회법과 질서에 대한 무시 및 무시, 사역자들의 역할 모호 및 업무 중복, 교회 내의 의견 충돌, 교회 기관들의 운영적 미숙, 음주, 도박, 중독 등 교역자의 부적절한 행동, 교인과의 마찰, 감동없는 설교, 후임선정 문제, 교회 내 권력 다툼 등을 갈등의 원

인으로 꼽았다. 채 교수는 “일단 갈등이 발생하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듣고 이해해야 하며 상대방을 마귀라는 단어로 정죄하거나 흑백 논리로 대응하는 자세를 피해야 한다”면서 갈등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대응하고 객관적인 위치

에 있는 갈등조정자문단을 활용하며 은퇴 목회자를 통해 중재받는 것을 권했다. 변호사를 통한 법적 해결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 경우 경비가 많이 들며 상처가 크게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았다. 채 교수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치유공동체로 거듭나며 목회자와 장로 등 평신도의 영성, 인성이 개발되고 서로 간의 대화와 만남의 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포럼 후에는 시카고원로 목사회장 조영의 목사와 시카고 장로선교회 직전회장인 권수길 장로가 논평했으며 갈등 가운데 있는 시카고 교회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됐다. 이날 좌담회에는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 평신도였다.

〈김준형 기자〉

15년간 3500명 세례 준 “하나님의 역사”

15년간 동남아시아 오지에서 선교하는 일은 보통 각오가 필요한 일이 아니다. 통통배로 4시간, 걸어서 5시간을 다니며, 독충에 물리고 식중독에 걸리면서까지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 개척하고 목회하며 3500명을 세례 주는 역사는 더욱 불가능해 보인다.

보통 사람, 신정채 선교사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심과 성령의 도우심, 선교에 동역하는 모든 교회, 사역자들의 협력으로 이뤄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의 햇볕에 그을린 까만 피부를 가진 그는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에 자신의 사역을 실어 나갔다.

그는 보통 사람 중의 보통 사람이었다. 노랑진에서 생선 장사를 하다 소명을 받고 신학공부를 마친 후 목회자가 됐다. 교회를 개척한 후에는 평범하다 못해 지쳐가기 시작했

서 기독교를 받아들일지 말지가 결정된다. 가결이 되면, 말 그대로 모든 부족원이 집단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부결되면 향후 5년간 이 마을은 다시 찾아 갈 수 없게 된다. 그렇게 세례받은 사람이 75개 마을의 3500명이고 지금은 이들 가운데 신 선교사와 함께 전도하는 동역자들도 생겨나서 사역에 활력이 불었다. 만약 미국이나 한국에서 어떤 목회자가 15년 목회하면서 직접 전도해 3500명을 세례했다면 그것도 기적 중의 기적일 것이다. 그러나 신 선교사의 사역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뤄졌기에 하나님 기적이 더욱 많았다. 주장에게 목숨이 잡혀 가며 7번 기도한 결과 시각장애우가 눈을 뜨고, 그 이후로는 손을 대면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되던 일들이 오지 선교 현장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평범하다 못해 지쳐가기 시작했

말레이시아 신정채 선교사 갈릴리교회에서 집회

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돌파구는 선교였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밀리다시피 해서 떠난 곳이 말레이시아. 이슬람교가 국교인 그 나라에서 그가 찾은 곳은 국교조차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오지였다. 육지 길이 없는 곳은 배를 타고, 뱃길이 없는 곳은 숲을 헤치고 수시간이 걸려 찾아 가는 곳은 몇 개의 가정과 수십명의 가족으로 구성된 부족이다. 복음은 키넴 예수의 “예”자조차 들어 보지 못한 그들을 찾아가 의약품과 옷을 나눠 주며 마음을 열게 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주장의 마음이 열리면 추장을 통해 부족의 마음을 열고 마을 회의에

이 원하는 일을 하시고 하실 수 있다”는 결심을 배웠다.

12일부터 14일까지 갈릴리갈리교회에서 열린 부흥회에서 신 선교사는 한결같이 선교에 도전을 던졌다. 그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정체될 수 밖에 없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 존재 이유까지 흔들릴 수 있다”면서 자신의 사역 속에서 경험한 일과 기적들을 간증하며 성도들이 과감하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선교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집회 마지막 날, 갈릴리교회는 선교약정서를 성도들에게 나눠주며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지로 매달 선교헌금을 약속하게 했다.

〈김준형 기자〉



신정채 선교사가 “말씀의 잔치-위대한 축복, 위대한 만남, 위대한 헌신” 부흥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녀”

남편과 아들을 차례로 백악관에 입성시킨 석은옥 여사가 12일 두란노침례교회에서 간증했다. 장애를 가진 남편 강영우 박사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 교수가 되고 나중에는 백악관 국가장애훈위 정책차관보가 되기까지 그녀는 남편의 손과 발이 되어 왔다. 그녀는 간증에서 짧게 강 박사의 삶을 전해 준 후, 곧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로 넘어 갔다. 둘째 아들인 강진영 박사는 예일대를 졸업하고 오바마 정부의 입법관

귀함을 심어줘야 아이들에게 자신감이 생겨날 것 같았고 “각자의 사명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만큼 노력해야 한다”는 믿음을 교육시켰다. 두 아들과 함께 매일 찬송과 기도를 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했다. 큰 아들에게 세 살 때부터 기도를 시켰고 그는 간단한 말로 기도하곤 했

시력을 잃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교수가 되지 않았다. 내가 어른이 되면 아빠 눈을 고쳐주는 게 어땠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석이는 자신이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늘 그런 이야기로 격려하며 아들이 꿈을 이루도록 했다. 지금 첫째 아들은 레

중학교를 지나며 이 같은 습관이 계속되어 많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훈련을 자연스럽게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진영이는 ‘한국과 미국에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편견과 어려움이 있구나. 변호사로서 대변해 주면 인간의 존엄성을 찾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스스로 갖게 되었고 변호사로서의 꿈을 품고 결국 이루게 되었다”고 말했다.

석 여사는 자신 역시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기도하는 중에 한인들의 미덕을 미국 사회에 알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코리안 아메리칸 워먼스 클럽을 만들어 어려운 이들을 돕는 활동을 펼쳤다

〈김준형 기자〉

백악관父子 만든 석은옥 여사 간증

다. 그러던 어느 날 진석이가 “하나님, 저에게 보는 아빠를 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다. 함께 놀아 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앞을 못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 때부터 진석이에게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빠가 눈을 다쳤을 때 빨리 치료하지 못해

이건 전 대통령의 눈을 치료했던 주치의가 있는 병원의 멤버가 되었다.

둘째 아들 진영이는 차분하고 책 읽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한글을 가르치면서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언을 택했다”며 “방학 때면 잠언 한 권을 다 읽었고 초등학교와

LAX MEDIA (SKC) / SKmax TONER INC

- SKC 설교/찬양 COPY용 CD-R
- Custom Screen Printing Service & Packaging Service
- Taiyu Yuden Blank CD-R 판매
- 3UP CD Label 판매
- 각종 case & accessory 판매

CD DVD 복사기

- 1Year Warranty & Lifetime Technical Support

SKMAX TONER는 hp brother Canon SAMSUNG EPSON I.F.X.M.A.R.K. D.C.I.L

- Powder만을 Refill에 판매하는 문제 제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제품입니다.
- Powder Refill 제품 구매로 프린터 작동 이상이나, 프린팅 용량 부족의 문제점 발생이 없습니다.
- * 100% 품질 보증 !!!, 100% Satisfaction Guaranteed!!!!
- (문제 발생시 100% 교환 및 환불 보증) -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 가격이 싸서 구매했던 Toner 제품의 품질에 불만족 하신분
- 저가 Refill 제품의 프린팅 용량 부족으로 불만족 했던분
- 제품 구매후 After Service에 불만족 했던 분
- 믿을 수 있는 제품 생산 및 공급 회사를 만나지 못했던 분

SKMAX Toner로 연락 주세요.
최대 60%까지 비용 절감 해드립니다.

Hot! Hot! Hot! Special Sale Items!

LAX Media, Inc. (SKC 미주 서부 총판) 944E Pico Blvd. #4 Los Angeles CA 90021
TEL. 213-749-0909, 213-718-3189 email : laxmedia@yahoo.com

GLOBAL VISION BANK

글로벌비전뱅크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 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글로벌 비전 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는 케리크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새 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글로벌 비전 뱅크로 연락 바랍니다.

Tel. 213-718-1512

글로벌 비전 뱅크 상임 대표 표세흥 목사



제3회 가정사역 컨퍼런스

“21세기 성공적 목회전략은 가정사역에 있습니다”

The 3rd Family Ministry Conference

가정사역의 불꽃을 지피는 "제 3회 가정사역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목회자들에게 가정사역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며 미주 한인 교회들의 가정사역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개 교회 실정에 맞는 가정사역을 하도록 돕는 컨퍼런스입니다. 제 1,2회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가정 사역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21세기 성공적 목회를 꿈꾸는 동료 목회자들에게 컨퍼런스 참석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초청합니다.



주강사 소개



김만풍 목사
 워싱턴 지구촌 교회 담임 / 남침례신학교(SBTS) / 보이스 성서대학, 상담학 / 예배학 객원교수 / 국제전도특별 북미주 한인본부 대표 / 미주 코스타 전대표/현이사



주수일 장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 한국대학성경교회 회장 / 침성섬유 외 5개 중소기업 회장 / 온누리 교회 사역장로 / 극동방송 "가정 칼럼" / "가정 행복 강의" 고정출연 / 저서: 아름다운 가정의 비밀(국민일보) / 진새골 사랑 이야기 (두란노) / 현 사회복지 재단 "사랑의 집" 대표



정정숙 박사
 패밀리 터치 원장 / 교육, 상담 및 가정사역 전문 / 가정생활, 교회 교육 세미나 주강사 / 교육 및 가정 칼럼니스트 / 객원 교수 (Canada Christian College) / 철학 박사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MA & PH.D.)

날짜 3월 8일(월) ~ 10일(수) 9:30 am ~ 5:30 pm

장소 프라미스 교회 (순복음 뉴욕교회)

130-30 31 Ave. Flushing, NY 11354



- 주주 등** 제 관 록
 21세기 성공적 목회전략은 가정 사역에 있습니다!
 패밀리 터치
 패밀리 터치
 (Family Touch)240 Grand Ave. #6 Leonia, NJ 07605, Tel: 201-242-4422
- 참가 대상** 담임 목회자, 부사역자들과 가정 사역에 관심있는 평신도
 \$ 180 (2월 10일 마감), \$ 200 (2월 27일 마감), \$ 220 (당일 접수)
- 강사** 김만풍 목사, 주수일 장로, 정정숙 박사, 김충정 박사
 이문희 박사, 이수일 박사, 안선아 소셜워커, 김신호 회계사
 이규재 이사장, 오광복 소장, 오옥희 목사, 이은경 사모
- 목적** 1. 21세기 목회에서 가정 사역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2. 목회자들에게 가정사역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3. 평신도 가정 사역자를 훈련한다.
 4. 지역교회의 현실에 맞는 가정사역을 시작하도록 돕는다.
 5. 상담가, 사회복지사, 가정문제 전문가들에게 지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주제강좌** 목회와 가정사역, 그 현재와 미래
 교회 성장을 위한 가정사역, 가정사역을 위한 파라다임 슈프트
 가족 상담 현장 리포트, 구원의 완성과 가정사역
 가정사역 커리큘럼과 자료
- 선택강좌** 목회 상담, 부부사역, 부모 사역, 시니어 사역, 우울증 및 분노 치유 세미나, 청지기 재정교실, 성격 이해 세미나 : 에니어그램, 성격 이해 세미나 II: M. B. T. I, 가정 폭력, 이혼회복사역, Prepare & Enrich (에비 커풀과 커를 상담) 전문 가정 사역자 훈련, 사랑의 대화기술 (Mastering the Mysteries of Love), 자살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상담방향
 행복한 가정생활의 원리

후원

프라미스 교회, 찬양 교회, 후러싱 제일교회, 뉴저지 초대교회, 베다니 교회, 뉴욕 장로교회, 소망 장로교회, 효신 장로교회, 퀸즈 중앙 장로교회, 뉴욕 새교회, 뉴욕 지구촌 교회, 뉴욕 초대교회, 스피디 인쇄, 교회넷, 기독 뉴스, 기독 일보, 미주 기독교 방송, 아멘넷, CTS USA

이철 칼럼



이철 목사
가나안교회

절대적인 진리 혹은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변수 및 가능성을 포용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는 작금에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견지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신념과 고집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상대방의 견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며, 주변

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관철시키려는 사람들을 이웃과 직장, 그리고 믿음의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념있는 사람'이라고 하기 보다는 '고집이 아주 센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고집 센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다는 확

때면 항상 수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큰소리가 오고가고 격한 감정이 표출되고 주변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공해입니다. 그런 고집은 주변에 악취를 풍깁니다. 또 이런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 대부분은 본질적인 것 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

계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2:15에서 성도를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믿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직장동료, 그리고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참

향기로운 신념과 악취나는 고집

신속에서 사고와 행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자기정당화'가 강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고집을 펴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느낍니까? 보기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었던가요? 우리의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게 되는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고집'의 사전적 정의는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림 또는 그렇게 버티는 성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버림 혹은 버티는 성미를 가지고 자신의 이해와 논리를 펼쳐나가려고 할

때입니다. 이것처럼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효율적인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고집 센 사람이 아니라 신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념은 '본질을 굳게 믿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본질은 곧 신앙의 본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화의 삶입니다. 그 본질을 굳게 붙잡는 신념의 모습은 주변에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향기는 우리의 심령을 춤추

게 하고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2:15에서 성도를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믿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직장동료, 그리고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선교 칼럼

무슨 종교이든 그 역할은 기본적으로 창조주 질서를 세우고 모든 이가 공감하는 상식 속에서 인간의 행복과 인류의 발전을 위한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지극히 편협 되고 물상적인 이기적인 종교 행위는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는 보이지 않는 종교간의 영적 물리적 전쟁으로 치달고 있다. 개신교, 로마교회, 정교회, 불교, 이슬람, 힌두교, 이단들의 선교 활동, 세계는 종교인들로 인하여 매우 요란하고 시끄럽다. 그 중에 가장 도전적이고 조직적이고 전투적으로 임하는 종교는 단연 무슬림 교도들이다. 그

이미 모스크바에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선교 전략 중 하나는 중요한 지점에 땅을 확보하고 사원을 짓는 것이다. 시간이 되면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모스크바에서 어디든지 이제는 무슬림 사원의 침탈이 여기저기에 솟아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건물은 목적이 아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건물을 구입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뿐이다. 영국에서 어떤 무슬림 지도자는 영국의 무슬림 선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제 영국은 무슬림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교는 필요하지 않

무슬림 전략 포교 활동

규모와 전략은 탁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전 지역에 무슬림 사원은 이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이 되고 있다. 가장 요충지에 사방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 무슬림 사원은 그 침탈을 우뚝 세우고 있다. 이슬람을 낯선 이방인들의 종교라 여겼던 러시아인들은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하여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무슬림 인구의 증가와 선교는 열을 더해간다. 어떤 선교사가 이사를 하는데 운전을 하는 사람이 무슬림이었다. 이삿짐을 나르다가 시간을 보더니 이제 막 이삿한 방에서 기도도 좀 해도 되겠느냐고 한다. 무슨 소리냐고 하였더니 결국은 자기 차에 가서 기도하고 와서 계속 일을 한다. 그 신앙에 감탄을 한다.

다는 것이다. 스스로 굴러가고 점점 무슬림화되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 전체에 무슬림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할 수만 있으면 중요한 지점에 땅을 매입하고 기뢰만 되면 성전을 건축하여 나가는 그들의 전략은 대단히 효과적이므로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전략은 그 어떤 기독교 선교단체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가고 있다. 이제 세계 기독교 선교의 핵심으로 부상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선교의 차관과 동시에 무슬림 선교의 거점으로 한국을 주목한 것이다. 한국 무슬림 선교의 전초기지는 그동안 노력과 투자로 인하여 이미 튼튼하게 형성되었고 이제는 서서히 움직이고 활동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스크바 대학에서 학생들이 강당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무슬림 학생들이 와서는 기도를 한다고 하기에 모두 비켜 주었다고 한다. 기독교 학생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우리도 이 대학에서 기도운동을 벌여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약 한 달이 지났나 보다. 2009년 말, 모스크바 주에서 러시아 정교회 신부가 무슬림에 반대하는 설교를 하였다. 그리고 반 무슬림 운동을 펴다가 결국에는 무슬림 교도에게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정교회와 무슬림 간의 갈등이 예상되지만 그들의 약진을 막을 수 없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엄청난 무슬림 인구가

첫째,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자선사업, 구제와 봉사, 헌금으로 그들의 신앙과 사상과 견해를 알리는 것이다. 외국인으로서 가장 접하기 쉽고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신앙에 무관심한 자들은 이방인들의 자선사업에 감동을 받고 그들에게 호감을 가지며, 결국에는 포교에 빠져들어가게 되어 영혼을 도적 맞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물랑공세인 것이다. 둘째, 통혼 정책이다. 한국사람과 통혼 작전이다. 이방인과 결혼을 통하여 종교 혼합을 이루고 결국에는 사상으로 무장된 그들의 신앙으로 한국인들을 포섭하는 정책인 것이다. <계속>

정우성 칼럼



정우성 목사
세계선교교회

모든 자연은 나름대로의 냄새가 있습니다. 꽃도, 돌맹이도, 물도, 나무도, 짐승도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냄새가 있으며 각 사람마다 다른 체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냄새는 좋은 냄새인 향취와 나쁜 냄새인 악취로 구분됩니다. 당신은 어떤 향기를 내십니까? 향수는 곁에 바르면 잠시 향기를 내다가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진짜 향기는 우리의 마음 밑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말과 얼굴 그리고 행동으로 풍기게 됩니다. 향기 냄새는 나 자

신도 알지만 내 이웃도 아는 것 입니다. 구약에 이삭이 아들을 축복할 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창27:27)라고 격찬했습니다. 여기 "여호와와의 복 주신 밭"이 받는 축복이 "밭에는 이슬이 내리고 땅은 기름지고 곡식은 풍성하게 된다"(28절)는 것입니다.

어웁니다. 구원 받았으면 좋은 열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 2:14에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했고, 15절에서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믿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유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됐습니다.(요12:1-8) 향기가 온통 방안을 충만히 채웁니다. 이런 희생이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헌신을 댓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헌신 주일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예수 향기가 우리 몸에 가득하게 배일 것이고 그 향기는 가는 곳

예수의 향기를 발하는 사람이 됩시다

향기 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첫째 물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둘째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을 보면 "...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구원 받은 자로서의 행실을 통해 피

자들에게 우리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을 이르는 냄새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풍겨야 할 냄새를 예수 냄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향기가 가득한 곳은 예수님께 헌신할 때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헌신은 향기가 가득 넘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기 6일전에 예수님 밭에 옥합을 깨뜨려 버리고 마리아는 머릿결로 예수님의 밭을 씻으니 향

마다 부활의 기쁨과 행복을 줄 것입니다. 시인 바렌은 "백 사람이 한 번 읽고 마는 시를 쓰기도 한 사람이 백 번 읽는 시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백 사람에게 한 번 칭찬 받고, 한 번 향기를 발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한 사람으로부터 두근두근 "당신은 향기롭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당신을 보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미드웨이 렌트카 MIDWAY CAR RENTAL. 최저의가격, 최고의 선택, 최상의 서비스. 목사님, 선교사님 특별할 할인 혜택 적용해드립니다. 경제적 마일리지 최고의 자동차 / LA공항과 한인타운의 편리한 위치 한인타운내 무료픽업 각종차량 완비(고급승용차, 스포츠차, 컨버터블 및 기타) 7~15인승 밴 보유 / 교통사고로 인하여 렌트카 필요하신분 213.487.4700 한국인 담당 조수아 김. Toll Free: 800.499.5779 / Cell: 213.327.6194 위치: 2926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윌셔와 후버)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540 Wilshire Bl. #407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강선영 칼럼



강선영 목사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죄책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인디언들의 옛 이야기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쇠조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그 쇠조각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이때 느끼는 아픔이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맨 처음 나쁜 일을 할 때에는 그 죄책

감이 상당히 크지만, 가면 갈수록 그 쇠조각의 날이 무뎌져서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계속 저질러 온 범죄자가 조금씩 조금씩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되고 양심이 무디어져서 나중에는 전혀 가책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의 우화같은 이 이야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어린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늘 비난과 질책을 받아온 사람들은 이미 깊고 깊은 죄책감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마음의 병을 앓게 됩니다. 죄책감의 문제는 심리적 병증을 더욱 악화시키고 사람을 더욱 강박적으로 만들거나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의 문제에 지독하게 시달립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인들은 더욱 큰 죄책감의 문제를 호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할 기독교인들이 아이러니하게

도 더 큰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죄책감의 감정이 끈적끈적한 콜타르같이 발목부터 사람을 잠지게 하고, 마침내 숨이 막혀 죽을 때까지 차오르는 것을 봅니다. 마침내 진정한 사랑이나 참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죄책감은 사람의 생기를 앗아갑니다. 생명력을 파괴시키고 사람을 상실하게 합니다. 더

지독한 죄책감의 굴레

나아가 신앙마저 흔들게 됩니다. 자신의 구원마저 의심하게 합니다. 죄책감을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욱 내면으로 깊이 꺼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죄책감으로 인해 생명과 사랑이 고갈되고, 인생의 꿈 전체에 독이 퍼져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책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 가야 할 모든 에너지를 빼앗아 버릴 정도입니다. 마침내는 기진맥진해서 쓰러져버립니다. 죄책감을 부추기는 수많은 언어와 태도와 눈빛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눈이 말하는 하나의 단어에도 심리적 기반이 연약한 사람은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탄은 더 깊은 죄책감을 끼얹어 숨 막히게 합니다.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면 차가운 눈빛 한 번에도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전가하고 필요이상으로 괴로워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죄책감은 수치심을 동반합니다. 수치심은 모든 정신병증의 원인이 될 만큼 무서운 요소입니다.

당신의 차가운 눈초리가 쓰옥, 지나가는 동안에 누군가는 죄책감과 수치심의 병을 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빛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늘 따스한 사랑의 열기로 데워두십시오. 죄책감이 심하면 하나님의 용서, 인간의 용서를 수용할 수 없게 됩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회개하면 곧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책감의 굴레에 매여 있으면 용서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욱 큰 불행으로 자신을 몰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기독교인이 될 때만 무서운 요소입니다.

때문입니다. 영적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 차원에서의 치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오래 전에 형성된 잘못된 죄책감을 기독교인이 되고나서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미 형성된 왜곡된 사고와 감정과 느낌이 너무 강력하게 영혼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책감을 가슴에 부여잡고 덜덜 떨며 매여 있지 말고 손을 펼쳐 놓고 놓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사람이 샘물처럼 솟아나 당신의 매마른 영혼을 적실 것입니다. 당신의 죄책감을 부추기는 누군가의 절망적인 귓속말을 과감히 단절해야 합니다. 당신을 향한 비난의 메시지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소망의 메시지에 온 힘을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당신은 그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유영익 칼럼



유영익 목사
새생명침례교회

요즘 도요타 회사가 품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요타 리콜 사태의 시작은 작년 8월 렉서스를 탄 일가족이 가속페달 결함의 문제로 사망하게 되면서였습니다.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도

요타 리콜의 파장이 지속될 경우 매달 5억5000만 달러의 추가 영업 손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엄격한 품질관리의 대명사로 불려온 '도요타'가 이번 사태로 신뢰를 잃으면서 도요타 주가는 연속 추락하여 시가총액 약 25조6000억원(213억불)의 자산이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도요타 사태가 심각하게 된 요인에 대해 도요타 부사장은 한국 자동차회사(현대자동차)의 코스트 경쟁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마치 도요타 부품원가 절감이 이런 문제를 야기한 것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요타의 가속페달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도 동일한 문제 신고가 있어왔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요타 사태를 사전

도요타 사건이 주는 교훈

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못했을까요? 가톨릭대 경영대학원 교수 김기찬 교수는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기업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성장시켜온 기술을 과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요타 사건이나 출애굽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과거의 영광이 내일의 찬란한 영광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가정도 교회도 과거의 영광에만 심취한다면 누구나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도요타 회사가 품질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요타 리콜 사태의 시작은 작년 8월 렉서스를 탄 일가족이 가속페달 결함의 문제로 사망하게 되면서였습니다.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도

한방 칼럼



조선혜 원장
LA 동국대학교 한방병원장

아침, 저녁의 기온 차이가 심하고 바람이 자주 불면서 감기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감기 증상 중에 가장 오래 괴롭히는 증상 중 하나가 기침입니다. 기침은 탁한 공기와 이물질을 체외로 배출하려는 인체의 정상 반응기전으로 심한 기침은 목의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고, 생활과 수면을 불편하게 합니다. 호흡기는 위로는 기관에서 아래로는 폐에 이르는 신체기관으로, 매일 소량의 점액이 기관 속의 세포에서 생성되는데, 이 점액은 기도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상상태에서는 하루 종일

조금씩 삼켜 제거되기 때문에 축적되지 않지만, 감기등과 같은 감염이 있거나, 자극이 가해지면 대량 생성되고 이를 배출하려는 반응이 바로 기침인 것입니다. 기침에 대한 한의학의 표현은 해수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다시 '해'와 '수'로 나누며 해수 중 '해'는 기침 소리만 있고 가래증상이 없는 경우로 폐

있어 기침으로 가래가 나오고 숨이 찬 증상이 있다면 배의 속 씨를 긁어내고 검정콩이나 흑설탕을 채운 뒤 중탕을 해서 수시로 먹게 되면 기침을 가라앉혀줄 뿐 아니라 폐의 기능을 강화시켜 감기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침이 4주 이상 지속되는 것은 정상 상태가 아니므로 반드시 검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식이 잘못 삼켜서 기도도 들어가 막혔을 경우와 같은 물리적인 기침도 있습니다. 기침과 함께 나오는 가래의 양과 색, 점도는 진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흰색의 객담은 단순한 자극이거나 한사를 의미하며, 노란색 또는 녹색은 열사에 손상되었음을 의미하는데 감염의 경우에 주로 나타납니다. 붉은색은 혈액이 묻어나는 것으로 조열사에 손상되어 진액이 부족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가래가 동반되는 폐계질환으로는 폐의 혈괴, 폐농양, 폐부종, 폐렴, 기관지확장증, 결핵 등이 있는데, 기침의 유형과 객담의 색, 냄새, 양 그리고 다른 증상을 고려하여 진단을 내립니다. 다음 주에는 기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한의학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침 (1)

기침의 병변으로 보고, '수'는 기침 소리보다는 가래증상이 심한 경우로 비습의 병변으로 나타난다고 보며 해수는 폐와 비가 동시에 병변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래가 있는 경우에는 가래를 제거해주는 한약제를 사용하고, 가래가 없는 기침의 경우 폐의 면역기능을 높여주는 한약을 사용하여 기침을 치료하곤 합니다. 만성기침은 신허로 신불남기할 경우, 신앙허로 몸이 차거나 찬 공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폐가 허(虛)한 경우, 폐에 담음이 생긴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흔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배를 먹는 것인데 배는 열을 내리고 가래를 삭이며 소화를 돕는 효능이

이러한 만성적인 기침에는 만성기관지염, 후두염 또는 기관지염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의 경우, 만성적인 기침은 위에 언급한 질병뿐만 아니라 폐암과 같은 나쁜 징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또는 감염성 천식과 같이 기관지가 주기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는 질환에서는 기침과 함께 '쌩쌩' 거리는 천명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분진이 많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경우 또는 꽃가루, 분진, 곰팡이, 진드기 또는 담배 연기 등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도 기침을 할 수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 때때로 성인에게서도, 음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오픈 1주년 - 고객 감사 대잔치

한국 청담동의 스타일과 베버리힐스의 기술이 만나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매직 스테레이트 헤어를

50% 할인

드립니다

~~\$200^{up}~~ Regular Price

\$100^{up}

컷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코팅

또는

염색

을 해드립니다

* 1주년 행사기간은 2010년 4월 30일 까지 입니다.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편리한 주차장

160대의 넓은 실내 파킹장

웨스턴 길에 있는 주차장 입구로 들어 오셔서 2층에 주차하시면 2층에서 바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LA 최고의 위치 - 매리리콘도 상가 2층

월서 + 웨스턴 코너

앞서가는 미용이 좋아하는 곳

mystylist HAIR SKIN

3800 Wilshire Blvd., #2076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213-381-6485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지난 1년간 찾아주신 많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싱선수에서 목사로, 지금은 영어책 저자로...

'트럼펫 잉글리쉬'의 저자 박정수 목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권투선수 생활을 시작해, 전국 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수상했다. 세계적인 복서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공부하고는 답을 쌓고 살았다. 싸움을 잘 했던 그의 청소년기는 패싸움과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다. 첫 번째 영어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다. 영어공부를 시작했다. 4평짜리 자취방에서 하루 13시간씩 공부했다. 기초가 전혀 없었던 그에게 영어는 너무나 큰 산이었다. 눈물도 많이 흘렸다. 수도 없이 슬럼프에

지면서 회화를 공부했다.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 영국 버밍햄 대학원에서 선교학 석사를 수료한 후, 아메리칸 사모아 신학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를 했다. 1998년에 도미하여 미국 교회에서 3년간 부목사로 사역을 했다. 2001년 9월 애틀랜타에



저자 박정수 목사

트럼펫 잉글리쉬, 문법.회화 패턴 누구나 쉽게 공부

방향을 연속이었다. 어느 날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어머니는 죽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어머니께 착한 사람이 되어 보려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회화를 나가기 시작했다. 노래처럼 인줄 알고 친구 따라 참석했던 기도원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다. 목회자의 꿈을 갖고 순복음 신학대학에 입학했다. 이제 그의 꿈은 '세계적인 복서'에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다.

남들이 추천하는 온갖 학습법을 따라해 봤다. 중학교 교과서를 통째로 암기도 했다. 유명한 어학원에도 다녀왔다. 그러나 무조건 문장을 암기하는 학습법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했다. 그러나 영어의 장벽은 여전히 그를 힘들게 했다.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무조건 문장을 외우는 방식의 영어로는 안 된다는 걸 절감했다. 기초 문법부터 다시 다

'순복음 세계교회'를 개척하면서 교민들에게 영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작한 언어 사역은 '세계로 영어 회화 학교'로 이어져 현재는 애틀랜타 한인 사회에 인기 있는 학교로 인정받고 있다. 8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면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영어 교육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이번 '트럼펫 잉글리쉬'는 8년간의 노하우가 집대성된 책이다. 저자가

기초가 없어서 눈물 흘렸던 때를 생각하며, 영어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이민자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여 만든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회화를 배울 때는 문법을 무시하고 무조건 통째로 외워서 쓰라고 합니다. 기초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기초도 없고 성인이 되어 이민 오신 분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어를 가장 빨리, 쉽게 극복하는 방법은 회화에 필요한 문법을 먼저 공부 한 후, 문법을 토대로

만든 회화패턴을 연습하신 다음에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사용하세요.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영어에도 문법을 토대로 한 기본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회화 패턴은 영어공식에 단어만 집어 넣으면 멋진 문장이 쉽게 완성됩니다"라고 저자 박정수 목사는 말하고 있다. 트럼펫 잉글리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스스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특별히 바쁜 이

민 사회에 공부하기 힘든 사람들을 배려해 일상 속에서 언제나 들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회화에 필요한 필수문법 총정리와 문법을 기초로 단계별로 정리된 필수 회화 패턴 80개, 주제별 필수단어와 일상생활, 인사, 쇼핑, 인터뷰의 필수 표현 등이 한국말과 현지인 영어교사의 생생한 발음이 담긴 오디오 CD 6장이 녹음되어 어디서든 영어가 생활이 되어 듣고만 있어도 영어가 들릴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우편 주문 시 (60달러) 수표 수취인을 A.W.O.C.로 쓰고 아래 주소로 보내면 된다. 보내실 곳: A.W.O.C. 2220 Sunny Hill Rd. Lawrenceville GA 30043 *문의전화: (애틀랜타) 678-860-0310 / 678-687-0725 (지재일 기자)

LET EXPO, 교회음향 시스템 정보를 한 눈에

2월 27일 레이저비전 월드 주최 방송 장비 엑스포 개최



레이저비전 월드(Laservision World, 대표 양철승)은 한인 커뮤니티 미디어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9년부터 매년 'LET EXPO'라는 방송 장비기반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라스베가스나 애너하임 등에서 열리는 대형 엑스포 등으로 변화되는 방송 장비들을 어려운 시간을 내서 봐야 했지만, 이제 LA 한인 타운에 위치한 레이저 비전 본사에 비치된 장비들과 벤더들을 직접 만나고 워크샵 등을 통해 기술 습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오는 2월 27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에 걸쳐 음향, 영상, 조명 등의 시스템 컨설팅과 HD 영상, 디지털 믹서(Digital Mixer)와 HD 카메라에 대해 야마하(YAHAMA), 소니(SONY) 등 주요 기업에서 직접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이다. 레이저비전은 2009년 처음 실시한 LET EXPO를 통해 교회 및 미디어 시스템이 목회의 방향과 예배 사역을 효율적으로 돕는 도구라는 것을 참가자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영상, 음향, 조명 분야 예배 문화의 중추

적인 분야 활성화로 한인교회의 예배 및 교회내 문화 공연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데 큰 기폭제가 되고 있다. 레이저비전은 프로 음향, 영상, 조명 장비 판매는 물론, 전반적인 시스템 설계 및 시공, 교육과 애프터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행사뿐만 아니라 최신 HD 레코딩 장비를 갖춘 넓고 조용한 Recording Studio를 갖추고 있다. 1991년부터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일해 왔으며, 공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ET EXPO 2010] 날짜: 2월 27일(토) 시간: 오전 10시~오후 7시 문의전화: 323-730-5051 웹사이트: http://laservision-world.com (지재일 기자)

[청소년 에세이]

미국의 Barack Obama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나 아니면 환경이냐를 택일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번성해 가느냐 아니면 사라져 가느냐의 문제다"라고 말한 것처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 인류와 다른 생명체가 지구상에서 계속

되기를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다. BBC뉴스에 따르면, "우리 인류가 새 밀레니엄(Millennium)에 목표로 삼은 세계적인 빈곤층의 수를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올바른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75% 가량의 빈곤층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이 기후 변화에 올바른 대응을 하기 시

외 빛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극심할 것으로 예상했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비용이 현 시세로 47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돈은 이미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서 이미 지불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진국들의 지난 실수로 인하여 가난한 나라의 가정들이 고통 속에서 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기후 변화에 의한 영향은 지금 모두에게 너무나 큰 문제이다. 기후 변화는 단지 빈곤을 일으키는 한 가지 원인정도가 아니라 가장 급박하고 현실적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더 급박하다. 조아라(Ahra Cho), 그라나다 힐스 하이 스쿨 10학년

기후변화에 관하여

존속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빈곤에 빠져있는 사람 중 일부를 구하려고 노력하다가 우리 문명을 쇠락하게 만들 것인가를 선택하는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한다. 그러기 때문에 '유엔이 빈곤 퇴치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빈곤 퇴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첫째,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빈곤

작해야 한다. 두 번째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아주 심각하고 급박한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물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금액은 만만한 액수가 아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들어가는 비용은 이에 비할 바가 못 될 것이다. 2008년 1월에 발행한 New Scientist Magazine에 따르면, 부유한 나라가 겪을 환경적인 손상에 대한 비용은 가난한 나라들의 대



조아라(Ahra Cho), 그라나다 힐스 하이 스쿨 10학년

성경에 나오는 용어,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어려운 용어를 한곳에 모았습니다.



생소한 용어 1500개를 비롯해 총 1800여개의 난해용어가 가나다 순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개역성경에서 어려운 용어 발췌
주요 영어성경을 참조해 한글, 한자, 영어동시 표기
용어가 등장하는 성경구절 명시
수첩크기로 휴대 용이 (어려운 용어를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주소 _____
한글성경난해용어 해설집 _____ 권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싸인) _____

가격 텍스포함 10불
전화,팩스,메일로 신청 받습니다.
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90010
TEL : 213 739 0403 / FAX : 213 739 0408

기독교일보와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선교회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명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45

금요찬양 오후 7:30
강연예배 오전 10:00
영아장년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6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228-9640 / FAX: 714-521-4636

소중한국교회(구:거리선교회)
대표 김수철 목사

매일 오전 7시(디펜더튼 47) Crocker St. 전야회 나눔예배
주일 1부 오전 7시 거리예배 / 2부 오전 9시 30분 전야예배
한인교회/새벽기도회, 영영, 후드밴드, 찬양, 한국노총자
무로금식 및 노숙자지원교회, 생애영양, 미얀마 무로금식 및
고아원 운영, 중국, 멕시코, 북한 무로금식 지원사업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www.ppeople.org
Tel: 213-385-4515 Fax: 213-385-5474 E-mail: streeta@yahoo.com

구세군나성교회
담임:김낙균 사관

주일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시 20분
수요예배&성경공부: 오후 6시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el: 213-480-0714 www.salvationarmy.com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산근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97, 2298(Fax) www.wbpcusa.com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
영아예배 : 오전 11:30
새벽예배 :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금요예배 : 저녁 7:30 / 저녁 7:30

176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 Fax: 323-913-4494

동양선교교회
임동선 원로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7시 0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0시 15분
주일 4부예배: 오후 12시 15분
주일 5부예배: 오후 2시 30분
FAMILY CHAPEL E.M.Sunday: 12:00 PM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323-466-1234 www.omc.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중고등부 :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 / 새벽예배 : 오후 1:00 / (월-토) 주일 오전 5:30
수요예배 : 저녁 7:30

111 S. Mariposa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3-9182 / FAX: 213-251-9182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한어 KM예배: 1부 오전 8시 / 2부 오전 11시
영어 EM예배: 1부 오전 11시 / 2부 오후 1:30
영어 CM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 새벽기도: 0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el: 626-793-0880/0220 Fax: 626-793-8412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석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9:3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
주일 4부(침례): 오후 1:30분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el: 213-365-6191 / FAX 213-365-6291

오렌지새영교회
담임 임병철 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오전 7:00(토)
새로미 : 오전 7:00(토)

315 S. Knott Ave. #206 Anaheim, CA 92804
Tel : 714-900-1008 comingj@gmail.com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3:00
친양예배와 기도 (매일): 저녁 7:00

SOLOMON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 (Ph.D.)
부총장: Dr. Brent Price

3921 Wilshire Blvd., #400-4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 Fax: 213-380-7755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주일 1부예배 : 오전 7:30 불후른예배
주일 2부예배 : 오전 9:40 아름다운 예배
주일 3부예배 : 오전 11:20 오직주님예배
주일 4부예배 : 오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el: 714-524-2029 Fax: 714-524-8844 www.sstpc.net

새창성교회
담임 최화랑 목사

주일예배 1부/2부 : 오전 9시 / 11시
찬양예배 : 오후 1:30
새벽기도 : 새벽 5:30
수요예배 : 오후 7: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EL 310-325-0501 / FAX 310-325-4282

세계선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주일 예배: 1부 오전 8시 / 2부 오전 1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영아대학부: 주일 오전 11시
한어 청년부: 금요일 오후 7시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www.worldmiss
T) 213-388-1927/213-388-2105 F) 213-383-3818 onchurch.com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태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45
주일 3부 (EM):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30(토)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beautifulchurch.org
Tel: 626-810-3455 / Fax: 626-964-5559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구서 목사

주일예배: 1부 8시30분 / 2부(영아예배) 9시45분
3부(중고등예배) 11시30분 / 4부(친양예배) 2시
주일학교: 11시30분 토요일침례예배 6시
새벽기도회: 6시 수요예배: 7시30분 금요기도회: 8시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 213-382-5658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칠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영아)예배: 오전 9시 3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화-금) 오전 5시 30분, (토)오전 6시

14555 Valley View Ave, Suite C,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714-236-0256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주일 1부예배 : 오전 8시
주일 2부 예배 : 오전 10시
주일 3부 예배 : 오전 12시
주일 4 예배 :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1,714,446,6200 Fax: 1,714,446,6207 gracemi.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주일예배 1부 :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 오전 10:30
주일예배 3부 : 오후 12:40
수요/금요예배(A) :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www.gccj.org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세현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0시
주일예배: 3부 오전 11시 30분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교회: (323) 732-7356 목사관: (818)993-3574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주일 1부 예배 : 오전 9시
주일 대 예배 : 오전 11시
수요 찬양 예배 :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회 (화-토) :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 310-530-8400 comecornerstone.com

축복교회
담임 김인경 목사

주일 1부 예배 : 9:30(영아) / 2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Cell Church (금) 오후 8시
청년대 예배 (토) 오후 7:30
Leadership Training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el 909-598-7731 Fax 909-594-5955 Walnutblessing.com

하나로교회
담임 박문환 목사

주일 1부 예배 : 오전 8:4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0:40
주일 3부 예배 : 오전 12:00
찬양기도회 (월-토) 오전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233 English Rd., Chino Hills, CA 91709
Tel: 909-464-9210 / FAX 909-548-4536 hanarochurch.net

헤브론교회
담임 강진용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45 (새 세대 예배)
교목부 예배: 오전 11시 45분
AWANA 주일 오후 1시 45분
수요 워십 콘서트: 오후 7:30

4050 W. Pico Bl.,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5-8677, 323-735-8888 FAX 323-735-9606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4부예배: 오후 12시 30분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춘근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30분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금요예배: 오후 8시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el: 310-940-1646 / 714-397-2875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주일 1부 EM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주일): 오전 6: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el: 949-458-9191 Fax: 949-459-9158 / www.newlifekpc.org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환 목사

주일 1부 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주일 EM 예배 : 오전 11:00
침례예배 : 오후 1:00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EL : 213-383-2939 NEWLIFEOSIS.ORG

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욱 목사

주일 기도회 : 오전 9:50분
주일 예배 : 오전 11시
주일성경공부 : 오후 12:45
토요일(Youth) 중고등부 모임 : 오후 4시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el : 213) 550-7377

Coffee Break Small Groups
한인지역대표 백은실 집사

www.coffeebreakkorea.org
coffeebreakgrace@hotmail.com

주소: 8208 Peppertree Ln., Cypress, CA 90630
Tel 714-995-4461 Fax 714-974-3017

심 있는 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금요 성경공부: 오후 8시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 6시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293-1257 / ShimChurch.org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주일 1부 오전 8:30 분당, 2부 영아예배 오전 11:00 EM
예배당, 3부예배 오전 11:00 분당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당
유아유치부 주일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실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F (310) 719-2229

일반인침례교회
담임:한중수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7시 45분
주일 2부예배: 오전 9시 45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45분
주일 4부예배: 영아예배: 오후 1시 35분
새벽기도 (화-토) 오전 5시 30분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파사데나 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주일예배 : 영아예배: 주일 오전 10시
스페인어예배: 주일 오전 10시
한국어예배: (1)부주일 오전 9시 (2)부주일 오전 12시

585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1
Tel 626-795-6252 Fax 626-584-8544 www.weppc.net

그레이스마운트교회
담임 김기환 목사

주일 예배 : 오전 11시
수요 예배 : 오후 7시
새벽 예배 : 오전 6시

3550 W. 6th St, LA, CA 90020 Tel: 213-448-9999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주일 예배 1부 : 오전 8:00
주일 예배 2부 : 오전 9:30 (영민예배)
주일 예배 3부 :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 오후 7:30 (수요일)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el: 818-549-9191 / www.choonghyun.org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진영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11:00 토요일(사랑제대):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el : 323-735-6412, www.gmccchurhc.com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철 목사

주일 1부예배 :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 오전 10시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
주일 4부(성찬):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el: 714-880-9556 Fax: 714-880-6418 dongshinchurch.com

한인어린이회 (어린이 선교회)
비영리 법인 주연방장부 FRS

회장: 테레사엄 목사

문의: 213-380-1112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주일 예배 : 오전 9:30 / 오전 11시
주일 학교 :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고등부 : 오전 11시 / 오후 1시
금요종보기도 : 오후 1시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el: 213-739-0515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주일예배 1부 : 오전 9시
주일예배 2부 : 오전 11시
주일 오후찬양예배 : 오후 1:30
금요예배 : 오후 8시
새벽예배(매일) : 새벽 5:30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 213-380-9377, Fax : 213-380-9378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주일 1부예배 : 오전 9시
주일 2부예배 : 오전 10시
주일 3부예배 :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 오후 7:20 교회분당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www.junimchurch.com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주일 1부예배 : 오전 9시
주일 2부예배 : 오전 11:30
오 후 예배 : 오후 2시
영 어 예배 : 오후 2시
새벽 예배 : 오전 5:30 / 금요찬양 : 오후 8시

2720 Montrose Ave., Montross, CA 91020
Tel : 818-249-2871 Fax: 818-249-0516 / www.laapc.org

임마누엘헬로십교회
담임 안송기 목사

주일학교(Joyland) : 오전 11시
중고등부(Dream Team) : 오후 1:15
청년부(Fee Team) : 오후 1:15
청년주일학교 :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4
Tel : 562-944-8082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주일예배 1부 :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 오전 9:30
주일예배 3부 : 오전 11:30
새벽기도회(월-토) : 새벽 5:30

110 N. Glen Ave., Pomona, CA 91768
Tel: 909-622-2324 Fax: 909-622-1480 www.inlandchurch.org

남가주리더교회
담임:김요섭 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분당)
주일 2부예배: 오후 1시 (분당)
장년성경공부: 주일 오전 11시 (매교교육관)
주일학교/중고등부: 주일 오후 1시 (교목관)
새벽예배(화-토) 오전 5시 (분당)

교회: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제2교역관: 3440 Wilshire Blvd, Suite 276, LA CA 90010
Tel: 213-215-8523 / www.scdm.org

중앙아시아선교회
대표 정기철 장로

CENTRAL ASIA MISSION

1878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65
Tel: 626-533-5300 Fax: 626-912-7453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주일 1부: 오전 8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주일 2부: 오전 11시 금요예배: 오후 8시
주일찬양: 오후 1시 30분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교회 : (213) 745-9191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의 정육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Prime 과 Choice 생고기 판매
양념 LA갈비 전문점/교회 단체 특별가격

프라이밍 생통심	프라이밍 꽃살	오리고기
프라이밍 갈비살	초이스 찜갈비	흑염소
샤브 샤브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돈까스/비프까스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11가점 (1호점) Tel 323.733.4677

혜밀리 종합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 리스 · 중고차 매매

여러분의 중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정직 · 신용 · 믿음으로 모시겠습니다



김기형

213.453.59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이사의 名家

귀국이사 · 시내이사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크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이사는 한강(漢江) 이삿짐에서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한국인이 직접 포장하고
정리정돈까지 담당하고 숙련된 경험을 이제 여러분의
KEY를 한강에 맡겨주세요! 한강은 양심을 드립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국식 포장 및 정리정돈까지”

LA 213.386.2424 O.C 949.784.2424

Local(시내) 이사 전문 • 무료견적 서비스 • 야간이사 OK

20~30야드 더 멀리

Carbite
맞춤 드라이브

파격 SALE

~~\$500~~ → \$149
~~\$300~~ → \$99

환.불.보.장
20-30야드 더 멀리
다가지 않으면 환불해 드립니다.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os Angeles, CA 90020

EAGLE GOLF
213-858-7979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 CD - DVD
- 영상 - 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혜밀리 만물상

주 7일 OPEN | 가정용, 사무용, 모든 가전제품
좋은 가격에 사고 팝니다.

세탁기, 드라이어, 냉장고 수리 교환 및 판매, 운반 설치

전화문의
환영 T.213-247-9555

나라 이주 공사

정직, 성실,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 영주권 갱신 및 분실
- 재입국 비자
- 소액재판 신청, 번역/통역
- 메디칼 신청, SSI/GR 신청
- 자녀 양육비 신청
- 속성 결혼/이혼 수속
- 각종 서류 작성 대행

(213) 388-9282 (213) 909-1103

반값으로 할수있다!

- 차바디수리 50% 절약 -

“획기적인 바디수리 시스템”
오토맥스 오토바디

213-265-8485, 213-388-4464

Main Office 2975 Wilshire Blvd 350 Los Angeles, CA 90010

결혼 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장례꽃 (Funeral)
- 교회꽃 (Church)
- 생일 꽃다발 (Bouquet)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저체사육, 자체차량, 전문고급인력, 30년 경험의 현대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삿짐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하여 드립니다.

전미주지역을 완벽하게
커버하고 있는 현대통운의
지사망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국적 언어 서비스 포함입니다

타주 이사, 시내 이사, 귀국 이사

무료전화 1-866-545-2424
323.766.1111

3022 S. Western Ave, LA, CA 90018
e-mail : skook@hyundaemoving.com

LANCE WANG 커튼

Window Treatment

타운의 유일한 디자이너 커튼 전문점
신세대 혼수 / 침대커버 / 쿠션
최고급 유럽원단
저렴한 가격 / 무료견적

Cushions, Bedding, Collectibles

213-384-5844, LA / 3개의 웨스턴
www.Lancewanginterior.com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CITI BLINDS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MR 박을 찾아주세요!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공장 직판 wood shutter
각종 Remote Control
BLINDS 제작전문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한국 ↔ 미국

당일 동시 (고액 전문)
소액도 가능합니다

TEL. 213-265-8485

건축 설계 도면 디자인

이경신 Kyong S. Lee (Mary)
Interior & Landscaping Designer,
Architecture Web & Graphic Designer

ARCHITECTURE DESIGN

INTERIOR DESIGN

LANDSCAPING DESIGN

E-2 Visa 및 투자 이민 가능하며, 언제든지 투자 상담 환영합니다.
미국으로 이민해서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Income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에 드립니다.

T. 213-284-4111

집수리 일체

내집처럼 성실하게 저렴하게

(714) 749-6406

“모든 자동차 유리 수리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아메리칸 자동차 유리

Cheap Repair!

- Foreign & Domestic Car
- 새 유리 & 중고 유리
- 넓은 커버하우스 인벤토리
- 무료 전화 견적
- Low, Low Prices
- Complete 오토글래스 서비스
- 한국어, 스페니쉬, 영어 서비스
- Stone Damage 수리

물 맞은 곳 때워 드립니다.
www.americanautoglassinc.net
Tel : (323) 752-1820
2052 W Florence Ave. Los Angeles, CA 90047

Joseph INTERIOR

인테리어

노약자 돌봐드릴 공이 좋은
곳, 정성된 식사와 간호로
성심껏 4분만 모십니다

- 창문, 도어교체, 부엌, 화장실 개조
- 나무마루, 타일, 마블, 그라나이트
- 페리오, 텍스, 램프, 사이딩, 스타코
- 각종 칸막이, 각종 물딩, 페인팅 (아우스, 점포, 사무실, 공장 리모델링)

헬렌데일지역 별장 휴양지
가족방문시 방문료 제공

323.788.8689 김메스디
26250 Corona Dr
Helendale CA 92342

213.281.2300 (안목수)

냉난방기 설치 전문업체 경력 30년 유엔브랜드 냉난방기 전문 취급업체 / 미주 전지역 LG, 현대, 위아, 삼성

AMAZING 에어컨백화점

7년 연속 애견 1위

<p>23</p> <p>11</p> <p>991288</p>	<p>23</p> <p>11</p> <p>991288</p>	<p>24</p> <p>11</p> <p>991288</p>	<p>25</p> <p>11</p> <p>991288</p>
-----------------------------------	-----------------------------------	-----------------------------------	-----------------------------------

에어컨 성능과 수명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LCF 863510

323.525.0011 / 213.200.5388 / amazingaircon.com

미주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있는 화제의 도서

영/어/회/화의 지름길 트럼펫 잉글리쉬

"신년 특별세일"

책1권+CD 6장 = ~~\$90~~ \$60(운송비 포함)

특히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 영어 학교를 다니고 싶는데 시간과 경제적 사정으로 다닐 수 없는 분.
- 미국에 오래 살아서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지만 제대로 된 영어를 구사해 보고 싶은 분
- 한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는데 어떤 교재를 써야하나 찾고 계신분
- 엄마 아빠는 영어를 배우고 자녀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고싶은 분(일석이조)

트럼펫 잉글리쉬 한권으로 모든것이 다! 해결됩니다.



행사기간 3월31일까지

저자 박정수 목사

이책을 쓴 박정수 목사는 고등학교 때까지 복싱선수로 생활해서 공부와는 담을 쌓고 살다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영어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조건 문장을 암기하는 식의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러한 공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미국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다 애틀랜타에서 교회개척과 시작한 세계로 영어회화교실을 다년간 운영하면서 이민자들이 효과적으로 영어를 습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터득하면서 영어로 인해 서러움을 당하는 이민자들을 생각하며 쓴 책입니다.

사례1 박00 (50세) 의료용품 판매상, 로렌스빌 거주

예전에 배웠던 문법책을 구하여 공부해 보았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1년을 우왕좌왕하면서 학교를 다녀보니 듣는 훈련은 나름대로 되었지만 막상 제대로 된 영어공부와는 거리가 자꾸 멀어졌습니다. 하루는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트럼펫 잉글리쉬' 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꿈에 그리던 방법으로 문법패턴과 반복훈련을 통하여 응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책이다! 싶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문장을 만들고 연습하다보니 영어 공부가 재밌고 어느순간 영어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례2 이00 (48세) 세탁소운영, 텍사스 거주

6장으로 녹음된 CD는 아주 발음이 정확하고 영어와 한국말로 녹음되어 있어서 출퇴근길에 차 안에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교재보다도 유용한 것 같습니다.

사례3 이00 (53세) 자영업, 플로리다 거주

저는 미국 사람들과도 영어로 대화하는 데도 저의 영어에 대하여서는 부끄러워하며 자신있게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펫 잉글리쉬를 통해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는 자신감이 생겨 비즈니스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례4 김00 (45세) 목사 사모, 뉴욕거주

트럼펫 잉글리쉬는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꾸며져 어려운 영어 문법을 쉽게 패턴으로 정리해 놓아서 공부 하기가 쉽고, 응용문제들은 주로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회화들이라 그동안 몰라서 못 써먹었던 미국식 회화방법을 많이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례5 영어 학원 원장 AMIGO Language Center Augusta, GA 706.589.7600

영어 회화를 문법 패턴에 맞게 잘 만들어져서 그동안 찾고 있었던 정말 좋은 교재 입니다. 현재는 트럼펫 잉글리쉬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트럼펫 잉글리쉬는 8년간 미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며 경험하고 확인한 가장 빠르고, 쉽고, 재미있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학습법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트럼펫 잉글리쉬

1. 회화에 필요한 필수문법 총정리
2. 문법을 기초로 한 단계별로 정리된 80개의 필수 회화패턴
3. 패턴을 이용한 실생활 필수 회화
4. 필수단어(14주제별)
5. 필수 동사구 100
6. 꼭 알아두어야 하는 숙어 109
7. 필수표현(몸상태, 일상생활, 인사, 샵핑, 인터뷰 질문)

오디오

CD 6장 한국말과 영어가 함께 녹음되어 있어 듣고만 있어도 공부가 됩니다. 현재 초등학교 미국 선생님의 정확하고 생생한 발음을 듣고 따라해 보세요.

책(250페이지 풀컬러)+오디오 CD 6장 = \$60 (운송비포함)

-Pay to the order : A.W.O.C

-보내실 곳 : A.W.O.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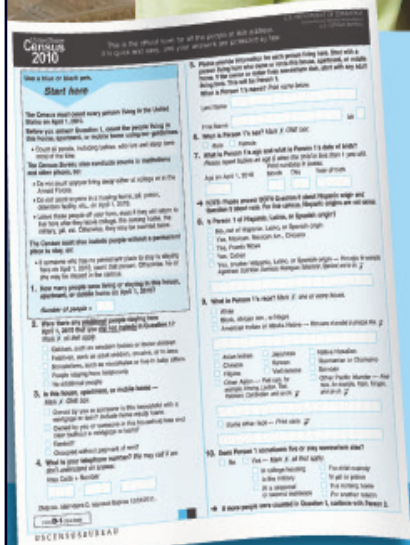
2220 Sunny Hill Rd. Lawrenceville, GA 30043

blog.naver.com/pjeh21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책의 내용을 보 수 있습니다.
www.naver.com검색창에 "트럼펫 잉글리쉬" 를 쳐주세요.



문의 : 애틀랜타 678-860-0310 • 678-687-0725 E-mail: jae-9418@hanmail.net

우리 커뮤니티를 돕는 길- 우리 모두 빠짐없이!



인구조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2010년 인구조사 양식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커뮤니티의 학교 개선, 직업훈련 증가 등을 도울 수 있도록 참여합니다. 10가지 간단한 질문에 따른 답변을 해주시후 양식을 우편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내일의 커뮤니티를 키울 힘이 있습니다.

- 해마다 분배되는 정부지원금 4,000억 달러 이상을 우리 커뮤니티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법적으로 누구나 참여하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는 엄격하게 보호해드립니다.
- 3월에 2010년 인구조사 양식이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양식에 답변하신 후에는 다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한국어 지원을 원하시면 2010census.gov를 방문하십시오.

인구조사 양식을 보내주십시오.

United StatesTM
**Census
2010**

미국인구조사

우리 손에 있습니다